

송혜선 | 인덕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부교수 남수경, 김보민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연구원

이 글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COC, COC+, COC+R, SPARC로 이어지는 일본 대학의 지역 활성화 인재육성 사업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와 글로벌대학30 등 대학 기반의 지방 활성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일본 지방대학-지역활성화 사업의 역사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약 205만 명까지 늘어났던 18세 인구가 그 이후 줄곧 감소세를 기록하고 합계출산율도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향후 지방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경영의 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사업에 착수하였다. 문부과학성 종합교육정책국¹⁾ 지역학습추진과는 2013년부터 ‘지역(지식)의 거점정비사업(Center of Community, 이하 COC사업)’을 실시하여 지방대학 지원 및 지방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최초 2년 간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2015-2019년에는 기존의 COC사업에 정부가 2015년부터 내걸기 시작한 ‘지방창생’을 더해 ‘지역(지식)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추진사업(COC+)’으로 확대 추진하였다(이정연, 2022).

2019년에는 「지역의 대학 진흥 및 청년의 고용기회 창출에 의한 수학(修學) 및 취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대학 및 지역산업의 진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0년부터는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방창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Centers of Community—Project for Universities as Driver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New Human Resources Education Programs, 이하 COC+R)’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지역과 대학 등이 일체가 되어 과제해결에 도전하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역협력 활성화 최고 프로그램(Supereminent Program for Activating Regional Collaboration, 이하 SPARC)’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지방대학의 지역 활성화 인재육성 사업은 2013년도부터 5개년 기간 ‘지(地/知)의 거점정비사업(Center of Community, 이하 COC)’사업으로 시작됐다. 사업 추진 배경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지역 커뮤니티의 쇠퇴, 글로벌화, 신흥국의 대두에 의한 국제 경쟁의 격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역에 맞는 교육·연구·사회공헌을 추진하는, 지역을 위한 대학교육 커리큘럼·교육조직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COC 사업은 지역의 과제와 대학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실행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대학에서의 배움을 통해 지역의 과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대학의 거버넌스 개혁과 각 대학의 강점을 살려서 대학의 기능별 분화를 추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재생·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이 글은 송혜선 교수님의 일본 사례 조사 내용 초안을 토대로 남수경과 김보민이 일본 사례를 추가 조사 보완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완성하였음

1) 2018년 10월, 기존의 ‘평생학습정책국’을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교육정책국’으로 조직 개편하였음.

〈표 1〉 COC 사업의 진행 과정

사업 명칭	地 知 지역(지식) 거점 정비사업(COC)	地 知 지역(지식)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추진사업(COC+)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프로그램 구축사업 (COC+R)
사업 기간	2013.09.~2018.03.	2015.09.~2020.03.	2020.11.~2024.03.
목적/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등이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교육·연구·지역공헌 활동」을 일체적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의 인구가 도쿄에 집중하는 것을 해소 • 산학관이 연계하여,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지역지향 과목 필수 등)을 실행함과 동시에, 학생에 있어서 매력 있는 취직처를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의 현지 취직, 지방의 대졸 채용 충족률 향상 • 산학관이 연계하여,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표를 책정. 그 지표를 바탕으로, 대학 학습과 출구(취직처)가 일체가 된 교육 프로그램(학위과정 교육)을 구축·실시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개혁(지역지향형 교육 필수, 대학 조직개편 등) • 최종 목표: 지역재생·활성화가 중심이 되는 대학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개혁(지역지향형 교육 필수, 대학 조직개편 등) • 지역특성의 이해, 지역을 필드로 한 과제해결형 학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정비 • 구체적인 현지산업과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인도 수강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
사업 채택 학교 수	77	42	4

자료: 김보민, 박주병(2023).

둘째, COC+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실시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일본 국·공·사립대학과 고등전문학교를 주축으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방으로의 인구 집적 등을 위해서 대학이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특히 대학은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고용 창출과 현지 취업을 향상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셋째, COC+R 사업은 2020년부터 5년간 시행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100세 시대의 고등교육기관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회인을 받아들이기 쉬운 효율적인 인재양성체제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의 경제권에 있는 교육과 직업, 교육과 새로운 산업을 이어가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학·지자체·기업 등 각 기관이 협력하여 그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그 목표에 근거해 대학과 취업처가 일체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끝으로 SPARC 사업은 그동안 진행된 지역 활성화 사업인 COC, COC+, COC+R 사업의 성과를 살리면서 대학과 지역의 협력과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22년도부터 시행하였다. COC, COC+, COC+R 사업을 거치면서 지적된 문제의식은, 지역사회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대학 측도 그것을 제시·양성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또한 지역의 핵심으로서 고도화를 담당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비율은 일본 전체에서 30% 정도에 그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지금까지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이나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은 물론, 地(知)의 거점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추진사업(COC+)이나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 구축 사업(COC+R) 등을 통해서, ‘대학’이 지역의 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지역 과제의 해결이나 지역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의 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대학교육개혁지원프로그램(GP)과 대학교육재생가속프로그램(AP), 지식집약형 사회를 지원하는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인재양성 기능 등의 개혁도 지원해 왔다. 따라서 SPARC 사업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지역협력’과 ‘교육개혁’을 병행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일체가 되어 융합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였다.

SPARC 사업은 대학 등이 지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지역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 확립한 선진적인 모델을 전국에 보급하여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COC와 COC+ 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1.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1) 지역 활성화 기반의 국가 발전 주도 필요성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의 진행, 지역 커뮤니티의 쇠퇴, 글로벌화, 신흥국의 대두에 의한 국제경쟁의 격화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동일본대지진이라고 하는 국난에 직면해 있고 현 상황이야말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활력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변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초고령화사회에 있어서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의 축소를 초래하고 지역경제의 축소가 인구감소를 가속시킨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방과 도쿄의 경제 격차 확대가 매력 있는 직장을 구하는 인구를 지방에서 도쿄권으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의 유출은 대학 입학과 대학 졸업·취직 시의 청년층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일본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표출하는 특색 및 시스템을 진화·발전시켜, 지역발전의 사회혁신이나 산업혁신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2) 대학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학은 사회의 변혁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지식의 거점」 세계적인 연구 성과 및 혁신의 창출 등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하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학개혁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새로운 대학상으로서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스스로의 인생과 사회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능력을 기르는 대학,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대학, 생애 학습의 거점이 되는 대학, 사회의 지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대학" 등이 거론되었다. 지역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육성과 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방으로의 인구집중 등의 관점에서는 지방대학이 완수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는 데 강조점이 주어졌다.

(3) 지방창생을 위한 대학과 정부의 협력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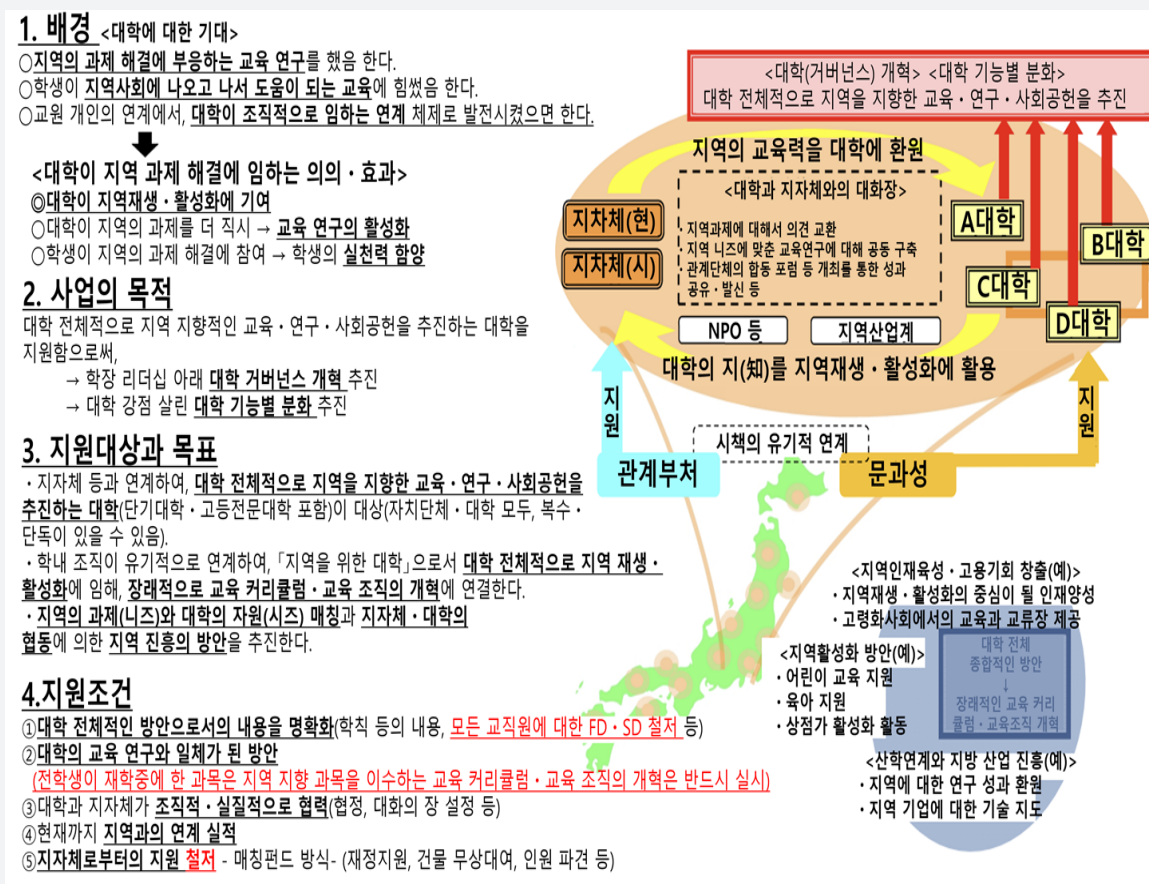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에 제동을 걸고 각 지역이 각자의 특징을 살린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를 창생(創生)하기 위해서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취업처나 고용의 창출문제에 정부와 지방이 일체(一體)가 되어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지방을 창생(創生)하고자 할 때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지방의 미래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주축은 지식기반사회의 추진을 담당해 온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이하 대학)이라는 것이다. 이들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의 인재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지역의 과제해결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지식의 거점'인 대학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그 존재 의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앞으로의 지방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학이 매력 있는 취업처나 고용 창출을 담당하는 지방공공단체나 기업 등과 협동하여 한층 활성화됨과 동시에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였다.

2) 사업의 목적

2012년부터 '지역을 위한 대학'으로서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리면서 대학의 기능별 분화를 추진하고 지역재생·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의 형성에 임해 왔던 '地(知)의 거점정비사업(COC 사업)'을 도입하였다. COC+ 사업까지 이어지면서, 이들 사업의 목적은 지방공공단체나 기업 등과 협동하여 학생에게 매력있는 취업처를 창출하고 개척함과 동시에 그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의 개혁을 단행하는 대학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창생(創生)의 중심이 되는 '사람'의 지방으로 집적하는 데 있다.

2. COC 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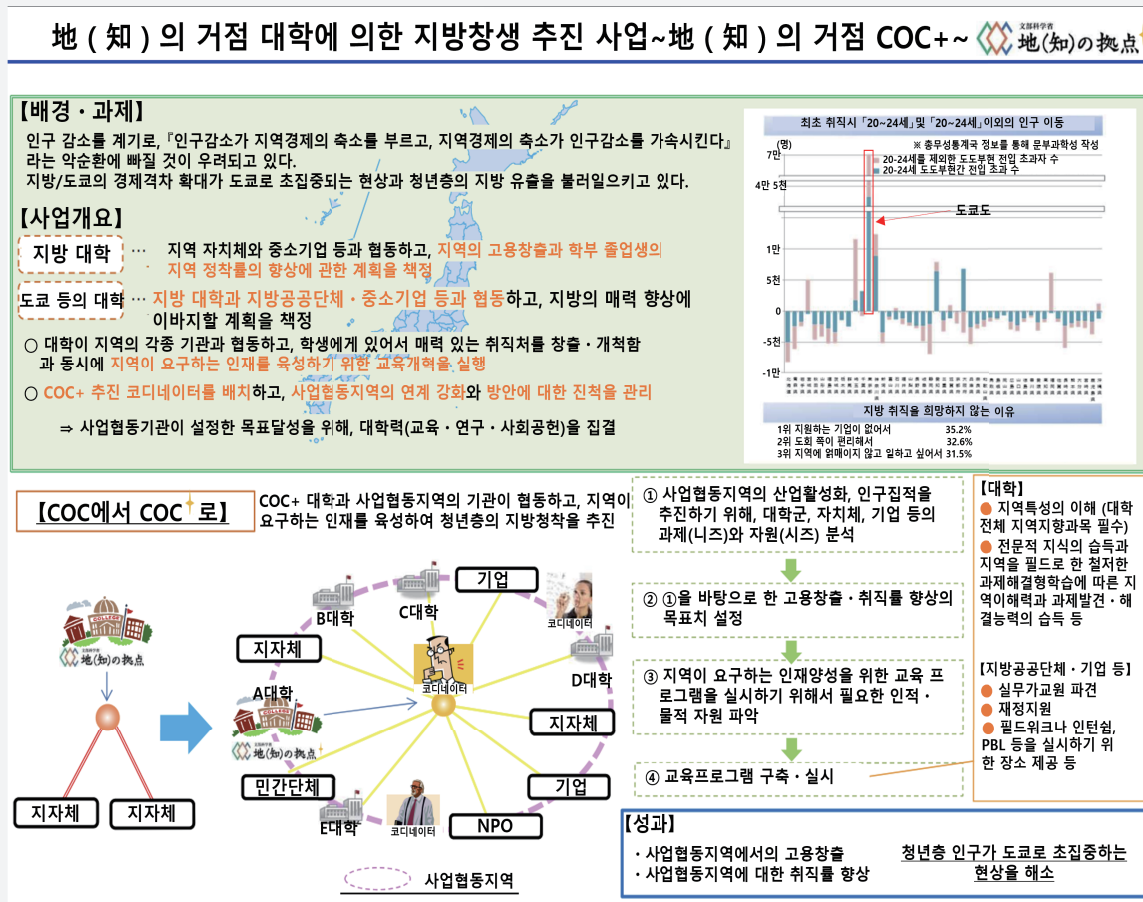


[그림 1] COC 사업 개요

자료 : 文部科学省, 平成26年度「地(知)の拠点整備事業」パンフレット(事業概要).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대상과 주요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 전체적으로 지역을 지향하는 교육·연구·사회공헌을 행하는 사업을 운영 •사업의 주요 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과제(수요)와 대학 등의 자원 매칭 등에 의해, 지역과 대학 등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대학 전체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기간 중에 교육 커리큘럼·교육조직의 개혁을 실행할 것 - 지역을 지향하는 대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또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체제를 정비하는 등 대학 전체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 - 대학과 지자체 간 대학의 장 설정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재정 지원, 건물 등의 무상 대여, 인원 파견 등) 대학과 지자체가 조직적·실질적으로 협력할 것
예산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 23억엔 (한화 230억원) •2014년도: 34억엔 (한화 340억원)
선정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도: 52건 •2014년도: 25건
지원기간	•최대 5년간

3. COC+ 사업의 주요 내용



[그림 2] COC+ 사업 개요

자료 : 文部科学省, 平成27年度「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COC+)」パンフレット(表紙・目次・概要).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지방에서 활약하는 인재의 육성이나 대학을 축으로 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방으로의 인구 집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 복수의 대학이 지역 활성화 정책을 맡는 지방공공단체, 인재를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NPO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고용 창출이나 대학 졸업자의 지방 정착률의 향상을 추진
- 약 5,900만 엔/년(年) (※초년도)
- 간사(幹事)대학은³⁾ 약 1.33배 금액 (※초년도 약 7,800만 엔)
- 4년째는 당초 보조금 배분액의 2/3, 최종 연도는 당초 보조금 배분액의 1/3로 체감(通減)됨

예산액²⁾

사업

COC

COC+

COC+R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억엔)

23

34

44

40

36

21

10

3

2

2

2

-

채택된사업수

52

25

42

(5년간 사업 진행)

4

(5년간 사업 진행)

(=신청한사업수⁴⁾)

(319)

(237)

(56)

(20)

주 : 작성자 일부 내용 편집.

자료 : 文部科学省, これまでの地方大学関係支援施策について.

선정건수

- 2020년부터 시작하여 사업책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총 4곳

4. 사업 선정 방법: COC+ 사업 사례

영역	심사 기준
본사업의 위치 설정	<p>[대학의 개혁방침을 바탕으로 한 본사업의 위치 설정 및 교육개혁의 실시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은 대학전체 개혁의 일환으로서 자리 매김되어 있는가? 신청의 기초가 되는 교육개혁의 시스템은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앞으로도 상기(上記)의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는가?
사업의 목적 및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달성이 일본의 지방창생(創生)의 추진에 있어서 의의가 있는가? 공통의 사업 목적치(目的値)는 각 사업 협력기관의 역할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목표 및 계획이 신청대학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사업 내용은 대학의 개혁 방침, 목표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사업 협력 지역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협력 지역이 인구 유출이 초과(超過)되어 있다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 본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업협력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 '사업협력지역'의 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가?
지방창생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의 구축·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협력지역이 원하는 인재상은 지역의 과제해결에 필요한 능력과 더불어 구체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가? 구축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었고 사업협력지역이 원하는 인재로서 필요한 능력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으로 되어 있는가?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나 학생의 지방 정착률 향상의 목표치 관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2) 김보민, 박주병(2023)에서 재인용.

3) 해당 사업을 전체 총괄 담당하는 대학.

4) 해당 수치는 사업 신청한 대표 대학의 수(각 사업에 참가하는 대학 수까지 포함된 것이 아님).

영역	심사 기준
운영체계와 정보의 공개, 성과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학내의 조직적인 실시 체계와 사업협력기관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사업협력기관이 일체(一体)가 되어 착수하기 위한 계획이 조직적・실질적이며 또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가? •「COC+추진 코디네이터」가 사업 시행에 적절하게 관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사업협력기관으로부터의 인적・물적・재정적 지원이 본 사업의 목적, 각 사업협력기관의 규모, 대학의 규모, 대학의 설치 주체에 비추어서 볼 때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실적평가가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어 있는가?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파악하고 분석을 한 후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수정을 행하는 PDCA 사이클이 구축되어 있는가? •시스템을 파급시키는 방법 및 계획이 타당한가?
사업실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연도의 실시계획은 타당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가? •각 연도의 실시계획은 지원기간 종료 시의 달성 목표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것인가? •학내체제, 전문인재의 배치나 학외(学外)와의 연계체제 등의 면에서 보조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적이며 발전적으로 사업실시가 충분히 가능한가? •자금계획 면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가?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적이며 발전적으로 사업 실시가 예측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가?

5. COC, COC+ 사업의 성공사례

1) 가나자와 공업대학(金沢工業大学)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가 연계하여 하쿠산로쿠(白山麓) 캠퍼스에 지방창생연구소(地方創生研究所)를 개설하였다. 白山麓캠퍼스에는 1, 2학년이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국제고등전문학교가 병설되어 있으며 지역과제를 소재로 하는 STEAM 교육이 영어로 실시되고 있다. 大澤敏(오오사와 사토시) 총장은 “사회의 과제를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여도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는 세대, 분야, 문화를 넘어서 서로 배우는 공동창조(共創) 시스템과 산업, 대학, 지자체, 그리고 연구자와 지역 주민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며 총장이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다.

(1) 지방창생연구소(Innovation Hub)에서 전개하는 지방재생

장기적인 인구감소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배경으로 지방재생을 위해 설립된 대학 내의 부속연구소로 지방재생프로그램을 里山都市(농촌도시)라고 명명하고 있다. 지방도시(里山)가 갖고 있는 자연과의 공생, 풍부한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여 IT, AI, Big Data 등을 구사하여 방재, 에너지, 교육, 의료, 복지, 산업의 진흥으로 연결지어, 지방도시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이노베이션 창출형의 비즈니스로 혁신시키는 것이 본 연구소의 목적이다. 그 성과는 도시 및 나아가서는 세계 각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기업, 산업계,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미래의 산업을 창조하는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가 연결되는 이노베이션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 地域GX共創프로젝트

지역 GX 공동창업 프로젝트란 NTT에너지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 공유 시스템이다. 하쿠산(白山)캠퍼스를 거점으로 둔 가나자와공업대학 지방창생연구소가 주식회사 세이코전기, 호쿠리전흥주식회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 공유시스템’은 산학 협력을 통한 사회적 구현의 결과로 이시카와현(石川県)의 제11회 이시카와 에코 디자인어워드 서비스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사회구현형 교육연구 실천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에 임하다.

가나자와공업대학(金沢工業大学) × 이시카와현(石川県) 하쿠산시(白山市)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 과제의 교육 연구에 임한다.

가나자와 공업대학은 각 보도기관이 실시하는 대학 순위에서 교육 력에 관한 순위로는 십여년 동안 상위권에 있다. 1995년 공학설계교육(과제해결형 학습)을 개시하여, 새로운 PBL교육인 프로젝트 디자인 교육(다른 분야를 배우는 학생이 팀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2006년부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 활동이나 수업 이해 달성도를 기록해, 학습을 자가 점검 평가하는 KIT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 도달 정도를 보완하는 수·이·공 통합 교육, 진로 어드바이저에 의한 촘촘한 커리어 지원 교육, 취직 지원 활동에서 「잘 서포트해준다」는 특색을 조성한 점이 현재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지역의 중심인 대학이지만, 현재 학부생의 약 75%는 현(県)외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대학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고, 지역의 사실적인 과제에 대한 교육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방안 사례가 아래에 다룬 「지방창생 연구소」가 설치된 하쿠산로쿠 캠퍼스(白山麓キャンパス)이다.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 과제의 교육 연구에 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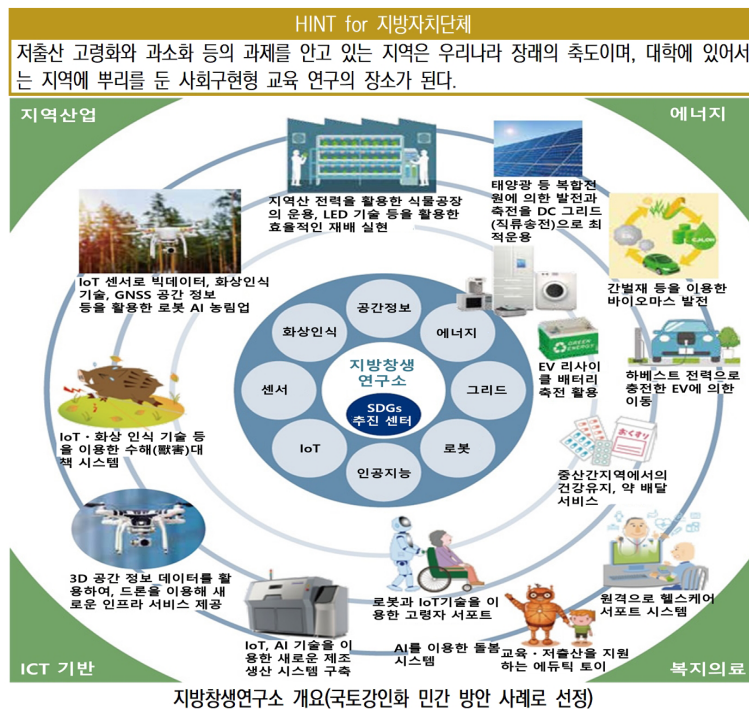
가나자와 공업대학은 각 보도기관이 실시하는 대학 순위에서 교육 력에 관한 순위로는 십여년 동안 상위권에 있다. 1995년 공학설계교육(과제해결형 학습)을 개시하여, 새로운 PBL교육인 프로젝트 디자인 교육(다른 분야를 배우는 학생이 팀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2006년부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 활동이나 수업 이해 달성도를 기록해, 학습을 자가 점검 평가하는 KIT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습 도달 정도를 보완하는 수·이·공 통합 교육, 진로 어드바이저에 의한 촘촘한 커리어 지원 교육, 취직 지원 활동에서 「잘 서포트해준다」는 특색을 조성한 점이 현재의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지역의 중심인 대학이지만, 현재 학부생의 약 75%는 현(県)외 출신자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대학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고, 지역의 사실적인 과제에 대한 교육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그 상징적인 방안 사례가 아래에 다룬 「지방창생 연구소」가 설치된 하쿠산로쿠 캠퍼스(白山麓キャンパス)이다.

행정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창조해, 지방 창생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산학관 연계에 의한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 하쿠산로쿠 캠퍼스를 만들고 「지방창생 연구소」를 설치했다. 그 캠퍼스에는 1, 2학년이 기숙사제인 국제고등전문학교가 병설되어, 지역 과제를 교재로 한 STEAM 교육을 영어로 실시하고 있다. 가나자와공업대학의 메인 캠퍼스가 있는 노노이치시오기오카(野々市市扇ヶ丘)에는 남쪽으로 약 30km의 하쿠산(白山) 등산로로 향하는 산기슭이 있다. 여기로 학부 횡단적으로 연구자를 모은 것은 오오사와 사토시(大澤敏) 학장의 강한 리더십에 의한 것. 「사회의 과제를 찾아서 해결책을 제시하여도 그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는 세대·분야·문화를 넘어 서로 배우는 공동창조의 시스템과 산학관의 연구 당사자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사회구현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여, 학장 스스로가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방창생 연구소의 설치 장소로 하쿠산로쿠 지역이 선택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와 과소화(過疎化)에 의해 지역 산업의 쇠퇴가 현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래의 축소와 같은 지역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SDGs에 대한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연구 개발 환경으로서 적합하다. 지역을 실증 영역의 장소, 기술 시행 장소, 기술 통합의 장소, 인재육성의 장소로 함으로써, 지역에 부리를 둔 사회구현형 교육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연구가 가까운 미래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과제에 대한 해결의 힌트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림 3] 대학의 대처사례집: 가나자와공업대학(金沢工業大学)×이시카와현(石川県) 하쿠산시(白山市)

2) 돗토리간호대학(鳥取看護大学) · 돗토리단기대학(鳥取短期大学)

돗토리현은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돗토리간호대학과 돗토리단기대학이 돗토리현(鳥取県), 구라요시시(倉吉市)의 지자체, 다른 고등교육기관, 경제 · 의료 · 복지 단체를 연결하여 ‘돗토리 간호대학 · 돗토리 단기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마을의 보건소(まちの保健室) 사업

전교원 · 전학생 · 시민의 참가하는 돗토리간호대학의 상징적인 지역연계 사업이 ‘마을의 보건소’ 사업이다. ‘마을의 보건소’ 사업은 간호사가 지역으로 나와, 건강측정이나 건강 상담을 하는 이른바 ‘출장형’ 지역 보건 사업으로, 1990년대부터 전국으로 퍼졌다.

2015년 ‘마을의 보건소’는 구라요시시(倉吉市)의 지구(地區) 공민관 3곳에서 시작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구라요시시(倉吉市)의 13곳 모든 공민관에서 실시되었다. 지금은 현 내(県内)의 전 지역으로 퍼져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전에는 연간 약 80회, 연 2,500명이 이용하였다. ‘마을의 보건소’ 사업에는, 돗토리간호대학의 교원(36명)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학년마다 커리큘럼에 편성되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며 수업이다.

(2) ‘돗토리 플랫폼 5+α’ 사업 전개 —간호대학 · 전문대의 리더십

현(県) 내의 지역 과제에 대응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플랫폼 ‘돗토리 플랫폼 5+α’는 2017년에 조직되었다. 플랫폼의 ‘5’는 현 내의 5개 고등교육기관을 나타내며, ‘+α’는 지자체, 경제 · 의료 · 복지 단체를 나타내고 있다. ‘+α’는, 설립 당시에는 돗토리현, 지역상공단체인 7개의 단체였고, 현재는 구라요시시(倉吉市)의 사회복지협의회, 간호협회를 더한 10개의 단체가 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2017년 문부과학성 사립대학 개혁 종합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3) 기타큐슈시립대학(北九州市立大学)

기타큐슈(北九州) · 시모노세키(下関) 지역은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 지역의 과제는 20~24세의 청년층이 타지역으로 가는 현상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2014년 시점, 기타큐슈시와 시모노세키시의 인구 유출은 1,085명으로, 이는 전출 초과 수(転出超過数)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 기타큐슈(北九州) · 시모노세키(下関)의 ‘마나비 토피아(まなびとぴあ)’ 사업

기타큐슈(北九州) 지역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타큐슈 · 시모노세키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에서 시작한 ‘기타큐슈 · 시모노세키 마나비 토피아’ 사업은 2015년에 ‘COC+사업’에 채택되었다. 기타큐슈시립대학(北九州市立大学)의 지역전략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현지 기업의 80% 정도가 지역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채용하려는 의향을 보여주는 반면, 학생들은 지역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낮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래서 지역 기업의 매력을 알리기 위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 ‘지역의 사회와 경제’ 등의 수업을 개강하고, 지역 기업의 젊은 직원들이 학생들의 경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거나 현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알리는 등 청년층의 커리어를 서포터하는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기타큐슈 · 시모노세키 지역에 대한 애착도(愛着度)의 면에서 36.0%에서 57.6%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대학에 입학한 입학자 수도 16.2%에서 32.9%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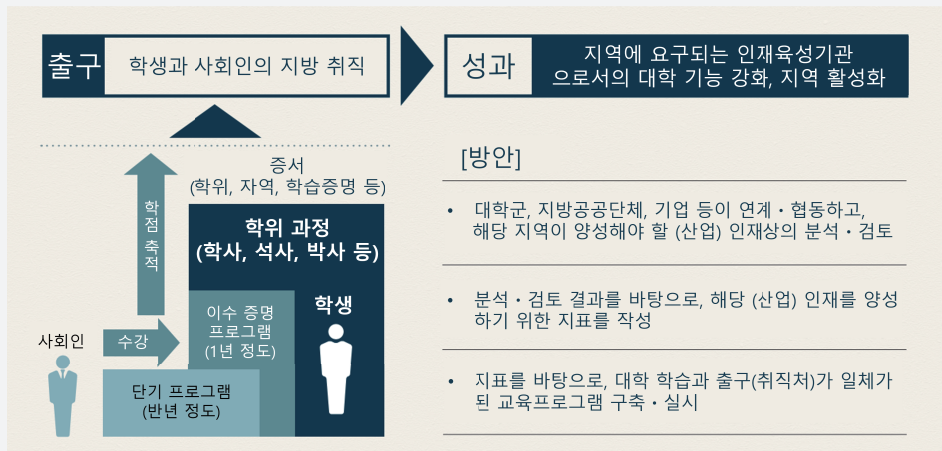
(2) 기타큐슈 · 시모노세키 ‘마나비토피아’ 사업의 성과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마나비토피아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지 기업에 취직한 OB와 학생과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산학관(産学官)의 협력으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깊어지고 있다. COC+사업이 종료된 2020년 이후에도 ‘지역과목’과 기초교육과목(다른 대학의 일반교양에 해당)은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자리잡아 전 학부와 전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강되고 있다. 또한 ‘지역창생’의 수업으로 2009년도에 개설된 ‘지역창생학군(地域創生学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역관리 멘토코스’와 지역에 정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가를 추진하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원’와 ‘스포츠·복지 코스’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목표로, 충실한 연습과 실습에 의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 때문에 1, 2학년 때의 실습부터 소인수로 지도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FM KITAQ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실습’에서는 기타큐슈의 FM국에서, ‘FM KITAQ’에서 학생이 기획, 취재, 출연까지 담당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III. COC+R 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 사례

1. COC+R 사업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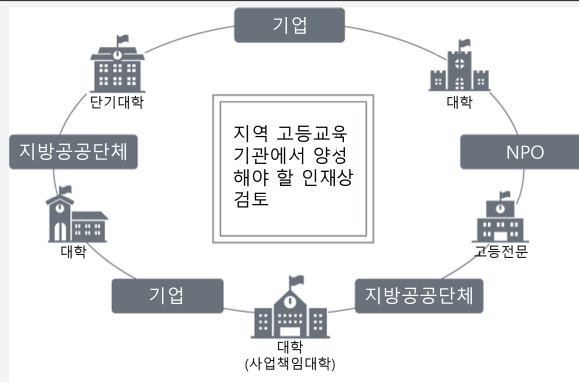


[그림 4] COC+R 사업 개요

자료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 (COC+R) リーフレット.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창생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주축이 되어, 그 지역의 경제권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직업, 교육과 새로운 사업을 연결해 나가는 활동 필요 • 인생 100세 시대에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가진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취직빙하기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인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효과가 빠른 출구일체형 인재 구성 확립 요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지식 거점으로서의 대학이 다른 대학이나 지방공공단체, 지역의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행함과 동시에 취업처와 일체가 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학 졸업자의 지방 정착과 지역 활성화 추진

운영 체계



[그림 5] COC+R 사업 체계

자료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 (COC+R) リーフレッ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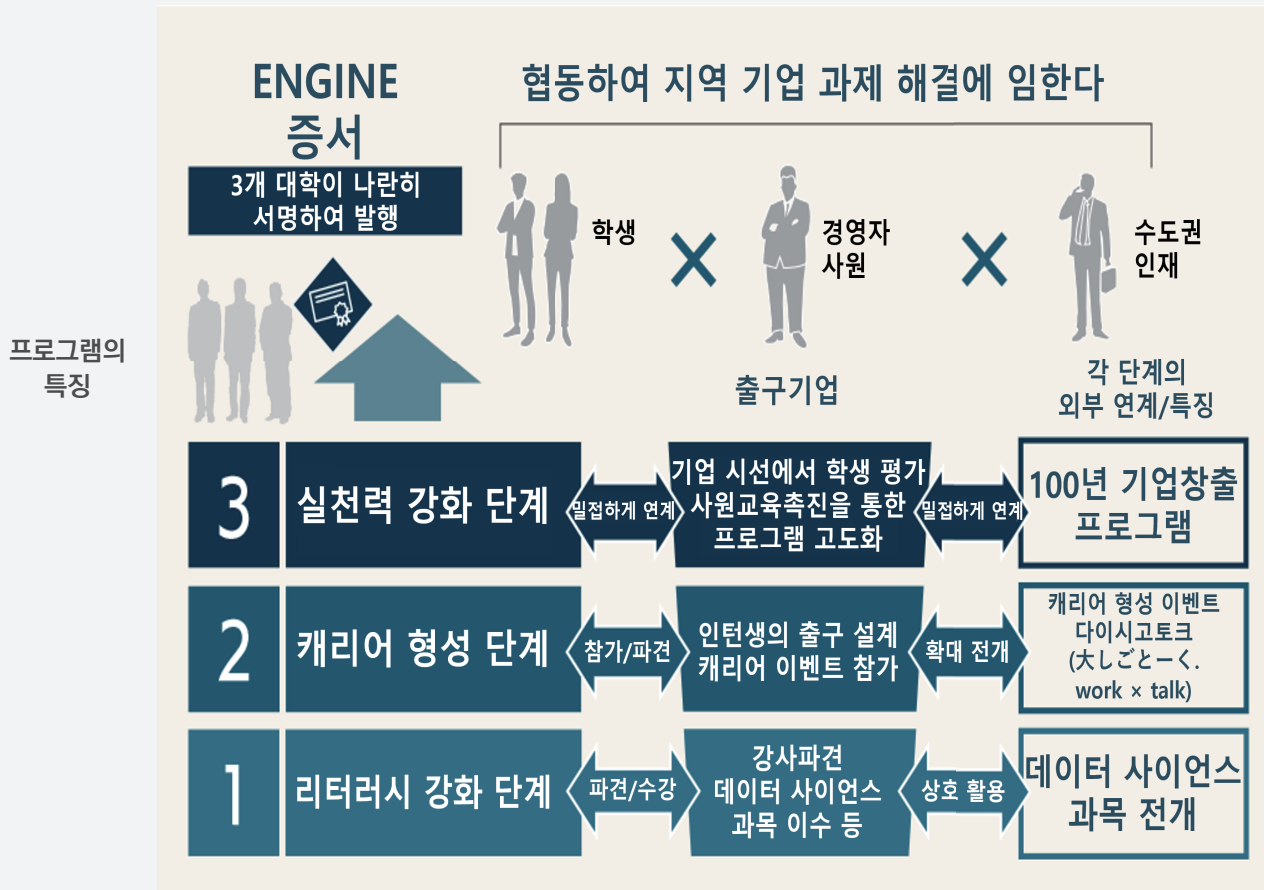
2. COC+R 사업 운영 사례: 선정된 대학의 프로그램

1) 사례 1: 지역 토대 산업을 재정립·창신(創新)하는 인재배출 프로그램

信州大学(신슈대학, 사업책임대학) – 참가교 富山大学(도야마대학), 金沢大学(가나자와대학)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감소와 COVID19를 경험하고 지역과 더불어 「이동·교류·체험」 가치의 새로운 정립에 있어서 배움의 환경을 구축 관광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모빌리티나 시설 활용, 음식이나 건강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를 육성·배출
육성하는 인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지방창생을 위한 산업 키워드로서 「교통」, 「음식」, 「관광」, 「인프라활용(IT기술을 포함)」에 주목하고, 전문적인 학술적 견지를 획득함과 동시에 「하트&데이터」 지향을 학습하여 실천적인 경험을 통하여 변화에 대한 대응력·돌파력을 지닌 탑 리더를 육성

•신슈대학(信州大学)·도야마대학(富山大学)·가나자와대학(金沢大学)중심으로 3개 지역에 걸쳐 산학관(産学官)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천적인 이수증명(履修証明) 프로그램을 구축
 •프로그램은 각 대학의 특징을 만들면서도 서로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다음의 세 단계를 몇 년에 걸쳐서 학습하고 지역과 대학의 배움과 인재의 선순환을 창출
 i) 문해⁵⁾단계: 문제분석력을 기르는 데이터사이언스 및 토피더에게서 혁신 마인드를 배운다.
 ii) 캐리어 형성 단계: 철도나 고속도로·지역시설·관광 등의 실제 현장과 온라인을 융합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
 iii) 실천력 강화 단계: 도전적인 사업을 하는 지역기업에서 PBL형 인턴십을 행한다.



[그림 6] 지역 기간 사업을 재정의·창조하는 인재 창출 프로그램 「ENGINE」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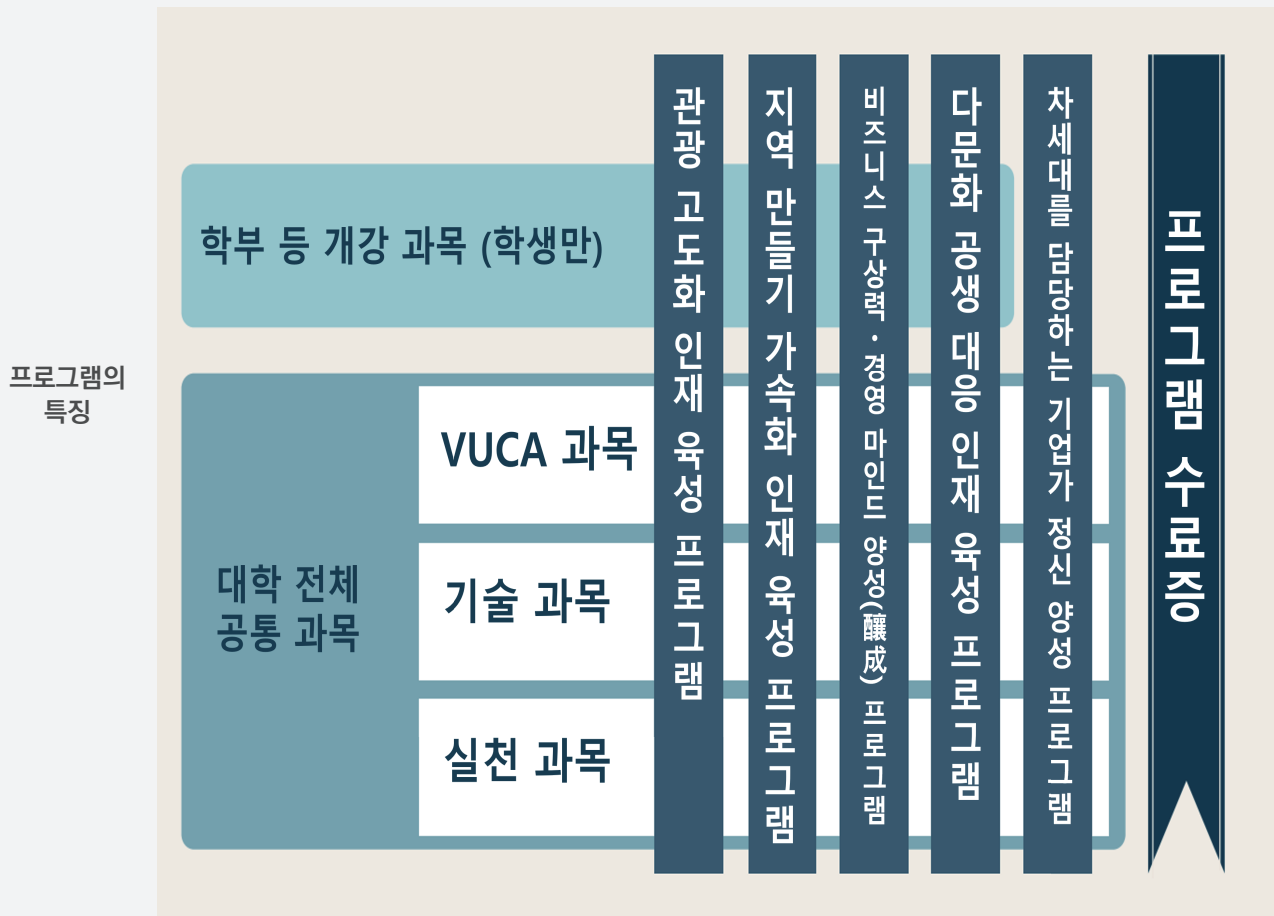
주 : 시고토크(しごとーく), 다이시고토크(大しごとーく) :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인·단체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자료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 (COC+R) リーフレット.

2) 사례 2: VUCA시대의 성장 전략을 지탱하는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山梨県立大学(아마나시현립대학, 사업책임대학) – 참가교 山梨大学(아마나시대학), 山梨英和大学(아마나시에이와대학)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능력개발, 진로상담, 실천활동, 자격취득이라는 캐리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 주도인 학사과정 교육과는 별도로 설계하고, 지방창생 인재육성을 위하여 대학·기업·자치체·관계단체에서 협동적으로 실천교육을 행하는 시스템을 구축
육성하는 인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UCA (Volatility(변동성·불안정성), UNCertainty(불확실성·부정확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애매성·불확실성)」 시대를 자유자재로 뛰어넘는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 수강생 자신이 앞으로의 캐리어 형성에 있어서 사내기업·새로운 기획개발 등이 행해지는 고부가가치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학생·사회인의 근간을 뛰어넘는 학업의 장을 구축하고 다섯 가지의 실천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각 프로그램의 VUCA과목, 학부 등 개강 과목(학생만), 기능 과목, 실천 과목보다 소정의 단위수를 습득하는 수료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관광고도화 인재육성 프로그램 ii) 지역만들기 가속화인재 육성 프로그램 iii) 비즈니스 구상력·경영마인드 양성 프로그램 iv) 다문화 공생대응 인재육성 프로그램 v) 차세대를 담당하는 기업가정신⁶⁾ 양성프로그램



[그림 7] VUCA 시대의 성장전략을 지원하는 실천적 교육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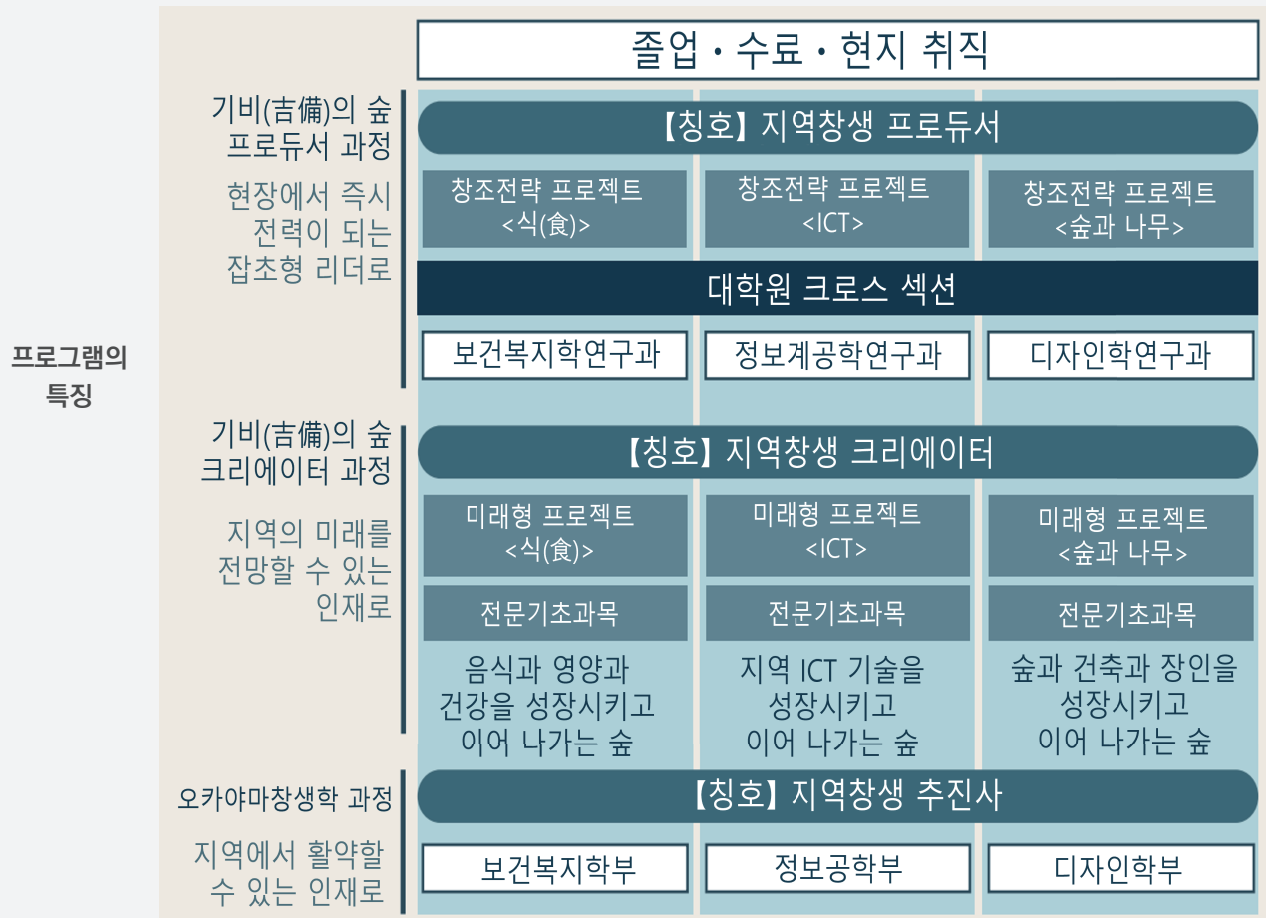
자료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 (COC+R) リーフレット.

6)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

3) 사례 3: 창생전략 프로젝트(잡초형 인재육성을 목표로)

岡山県立大学(오카야마현립대학, 사업책임대학) - 참가교 ノートルダム清心女子大学(노틀담세이신여자대학), 中国学園大学(주교쿠가쿠인대학), 협력교 岡山理科大学(오카야마이과대학), 愛媛大学工学部(에히메대학공학부)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카야마현(岡山県)의 종합계획인「岡山창생종합전략」을 토대로 ‘현(県) 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출구(취업처, 기업)와 일체(一体)가 되어 육성하는 프로그램 구축
육성하는 인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측 불가능하고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을 계기로 하여 미래형 사고와 지역의 힘을 가진 잡초형 리더, ‘높은 전문성과 폭 넓은 인간력에 입각한 지방창생을 담당할 씩씩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학부 1~3학년 때에 수강하는 ‘오카야마창생과정(岡山創生課程) (COC+)’ 을 기반으로 하여 본 프로그램은 학부 3학년부터 대학원생 및 사회인을 대상으로 함 대학원에서는 융합형으로 ‘대학원 융합형 공통기반 과목’ 을 설치하여 사회 변동에 부응하는 복합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대학・지역・기업의 공동체에서 배움 관계대학, 지자체나 산업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 인재상을 ‘숲과 건축을 잇는 숲’, ‘지역의 ICT기술을 잇는다’, ‘음식과 영양과 건강을 잇는다’ 3개 프로그램을 개설 기업의 신입직원, 학생, 교원들로 구성되어, 기업이 직면하는 과제와 공동연구를 테마로 하여 실천형 PBL연습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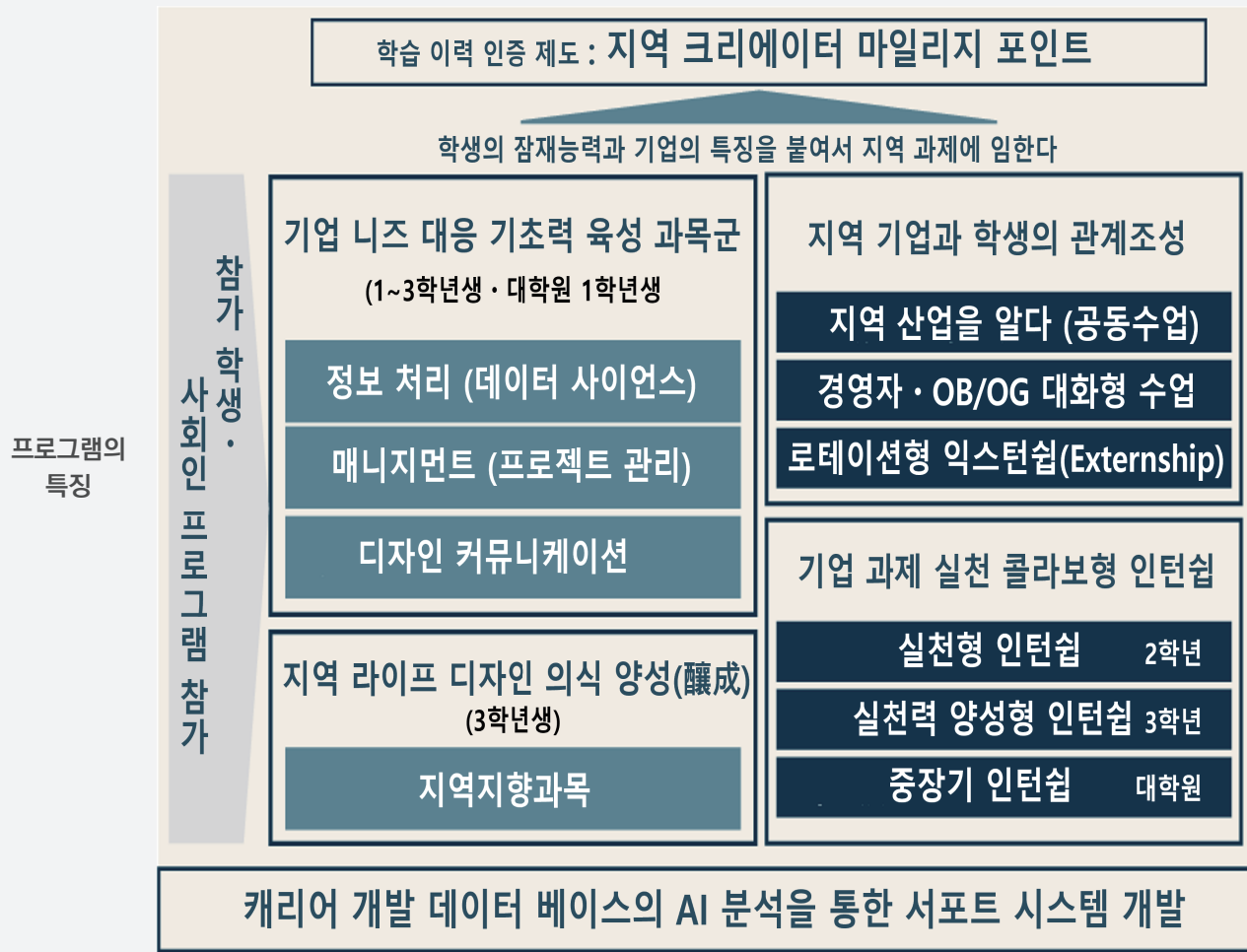
[그림 8] 기비(吉備)의 숲」 창조전략 프로젝트 개요

자료 : 文部科学省, 大 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 (COC+R) リーフレット.

4) 사례 4: 徳島 창생인재 기업공창(共創) 프로그램

徳島大学(도쿠시마대학, 사업책임대학)- 참가교 四国大学(시코쿠대학), 四国大学短期大学部(시코쿠대학단기대학부), 徳島文理大学(도쿠시마분리대학), 徳島工業短期大学(도쿠시마분리대학), 阿南工業高等専門学校(아난공업고등전문학교)

구분	주요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업과 연계하고 지역의 산업을 담당할 질이 높은 인재를 대학이 기업과 협동하여 육성하는 것으로 현(県) 내의 기업에 대한 메리트와 경영의 향상을 통하여 지역에 인재정책의 촉진이라는 선순환을 창출(創出)
육성하는 인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진행된 성장이 기대되는 4개의 산업 분야(차세대기술, 지역의료·복지, 6차 산업화, 지역 만들기·관광)를 주축으로 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육성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 사업에서는 융합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3개의 범용적 능력(정보처리, 매니지먼트, 디자인·커뮤니케이션)의 육성을 목표로 함 ‘정보처리’ ‘매니지먼트’ ‘디자인·커뮤니케이션’ 의 기초능력 육성 과목과 라이프 디자인 과목을 구성하여 기업의 경영 이념을 전하는 대화형 수업과 단기방문실습, PBL형의 인턴십을 편성하여 학습 이력을 인증하는 ‘지역 크리에이터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를 도입 참가교 학생의 이수를 위한 원격 시스템의 개발, 커리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AI 분석에 의한 기업의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



[그림 9] 도쿠시마 창생 인재 기업 공창 프로그램 개요

자료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 (COC+R) リーフレット.

IV. SPARCR 사업의 주요 내용과 운영 사례

1. SPARC 사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SPARC 사업은, COC, COC+, COC+R 사업을 거치면서 제기된 “지역사회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능력이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대학도 그것을 제시하고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지역의 중추로서 고도화를 담당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연과학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의 비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SPARC 사업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리면서 보다 고도화된 지역연계와 교육개혁을 양측으로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일체가 되어 융합적인 과제 해결에 도전하는 지역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하여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축하고 지역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선진적인 모델을 전국으로 보급시켜, 일본의 대학 교육개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법인 제도를 활용하여 각 대학에 있어서 융합형 교육을 기반으로 학위 프로그램을 구축한 복수(複數)의 대학을 연계하는 학사과정 사업 • 대학교육개혁을 견인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연계 플랫폼에 있어서 검토되는 고도화된 지역 연계 및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각 지역의 독자적인 구상을 기반으로 사업 기획 및 추진
사업요건	<p>• ①~⑧에 제시된 사항에 관하여 각 대학의 강점과 특색을 활용한 사업</p> <p>① 産学官金(산업계, 대학, 지자체, 금융)에 의한 지역연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견고하고 지속적인 연계 체제를 정비하며, 그 중에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학위프로그램 전체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의 고등교육을 지탱하는 자원과 필드로서 구상한 사업일 것</p> <p>※ 産学官金の 모든 분야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p> <p>※ 産 : 산업계란 특성의 업계 단체가 아닌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의 경제단체를 의미함</p> <p>※ 官 : 지방공공단체에 관해서는 일부의 부처가 아닌 해당 지방공공단체 전체의 참가 및 협력이 필요함</p> <p>② 2025년 3월까지의 대학과 연계된 추진법인을 설립하고 각 대학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며 연계 대학과의 사이에 연계 개설과목을 활용한 시스템을 만들 것</p> <p>※ 연계 개설과목을 활용한 시스템은 사업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p> <p>※ 신청에 참가하는 대학에 있어서 i) 연계과목을 개설하거나 ii) 각 대학이 개설한 연계과목을 활용하여 적어도 그 일부를 필수과목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필수로 할 필요가 있음</p> <p>③ 사업 책임대학 및 참가교의 대학에 있어서 학위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지역에서 원하는 인재에게 필요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재구축할 것(사업기간 내에 4년간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이루어질 것)</p> <p>※ 구축하는 융합형의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해당프로그램에 소속되는 모든 학년이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필수과목으로 할 것</p> <p>④ 지역사회의 현황과 과제를 배우는 과목이나 지역의 과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도전하는 학생을 육성하는 교육(지역과제 PBL, 지역학,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연계대학 간에 협력하여 실시할 것</p> <p>※ 다른 요건을 달성한다면 개강 시기는 상관없음</p> <p>※ 지역과제 PBL, 지역학, 기업가정신 교육 등은 필수과목으로 할 것</p> <p>⑤ ②~④의 항목을 반드시 정규 과목(124학점)에 넣을 것</p> <p>⑥ 입학 전의 학생이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융합형 수업과목의 연계 대학에 의한 공동개설 등을 시행하고 고등학생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등, 본 사업과의 연결을 위하여 高大(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p> <p>⑦ 상기(上記)의 과정을 활용하여 사회인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공헌하는 체계적인 이수(履修)증명프로그램의 구축과 강좌의 개강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p> <p>⑧ 유형1에 관해서는 융합형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부로 재편되는 대학을 포함시킬 것(중간평가 시에 학부의 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2028년 4월까지의 학생을 받아들일 것)</p>

구분

주요 내용

교육과정개선

•지역활성화인재육성사업~SPARC~에 의해 재구축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각 수업과목에 대해서

〈표 3〉 SPARC 교육과정 개선 요구의 주요내용

요건	과목	위치설정	이수요건	실시 시기
②	연계개설과목	정규과목	필수	사업기간 중 ※
③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정규과목	필수	사업기간 중 ※
④	지역과제 PBL, entrepreneurship교육 등	정규과목	필수	사업 기간 중
⑥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되는 시스템	정규과목이 아니어도 됨	없음	사업 기간 중
⑦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수 증명 프로그램, 강좌	정규과목이 아니어도 됨	없음	사업 기간 중

※ 사업기간 중에 연계 개설과목을 활용하여 4년간의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되므로 합리적인 시기에 개설할 것
자료 : 文部科学省, 令和4年度「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SPARC~」公募説明会資料.

① 본 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교학(敎学) 매니지먼트 및 관리 운영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정비할 것.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교학 매니지먼트 지침에서 효과가 예상되는 교육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 보다 공정한 성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루블릭(rubrics)⁷⁾ 및 학업이수 성과를 파악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학업이수 포트폴리오 도입
- 학업이수의 파악과 가시화 및 정보공표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교육 IR 기능의 충실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FD・SD 활동

② 지원금의 지원기간 종료 후에 본 사업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금의 창설(創設) 등 외부자금의 획득 방법도 포함하여 전략적인 자금계획을 작성할 것

지원기간

•지원기간: 최대 6년간 (2022년~2027년)

•프로그램의 선정건수・규모

•유형1: 학부의 재편을 목표로 하는 사업, 5건 정도

- 지원금 기준액(참가교 포함) 200,000천엔(千円)
- 지원사업 상한액 400,000천엔(千円)

•유형2: 고도화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 4건 정도

- 지원금 기준액(참가교 포함) 100,000천엔(千円)
- 지원사업 상한액 200,000천엔(千円)

대학과 지방공공단체협약

•본 사업의 실시예 있어서 연계처인 지방공공단체와 고용창출 및 청년정책에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고 총무성(総務省)⁸⁾의 '지방공공단체와 지방대학의 연계에 의한 고용 창출 및 청년 정착

•'정책추진요강'에 정해진 내용에 합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지급

•해당 지방교부세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 창출 및 청년층 정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사항을 명기(明記) 한 협정서(안)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것

•협정이란 대학과 지방공공단체가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고용 창출 및 청년 정착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합의를 얻은 사항을 정한 서면(書面)을 의미함. 협정에는 고용 창출 및 청년 정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고, 사업실시 후의 목표에 대한 성과 및 검증을 하는 취지와 체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신청자격

•대상기관: 국·사립대학(전문대학 제외)
※ 신청자로서 전문대학・고등전문학교는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협력기관으로서 본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

•사업신청자: 사업자는 사업 책임대학의 설치자, 신청자는 해당 대학의 총장
※ 지역의 대학이 복수 참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신청은 사업 책임대학이 대표로서 신청. 공동 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단위: 학위프로그램 학점① 1대학에 대해 1학위프로그램의 신청, ② 1대학에 복수의 학위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업도 가능함)

•신청건수: 하나의 대학이 신청 및 참가할 수 있는 건수는 ①이나 ②, 어느 쪽이나 한 건만 가능함

7) 평가 준거를 학습자 수준에 따라 기술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행의 과정 및 그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그 수행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피드백을 제공함.

8)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함.

구분	주요 내용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再推費⁹⁾는 모든 학년에 있어서 신청 시에 달성해 있거나 2025년 3월(중간평가 실시 전년도 말)까지는 확실하게 달성할 것을 요구함. 사업 책임대학뿐만 아니라 참가교도 대상이 됨 ※ 再推費는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를 특화시킨 유도형(誘導型) 보조금으로 ①세계에 자랑할 만한 탑 레벨의 교육연구 활동을 실천하는 대학의 기능을 비약적으로 높여, 세계에 발신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의 프로세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②대학에 있어서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나 신속하게 실현 가능한 시스템의 개혁을 지원 및 보급하는 것으로, 대학 교육의 충실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내용으로서는 3개의 방침의 설정과 운용, syllabus의 정비, CAP의 운용에 관해서 작성할 것
성과 관리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년에 대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 총장의 리더십 하에 실시할 것. 이를 위하여 학내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학년에 보급하여 성과를 활용할 것 - 프로그램의 실시 상황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자기점검과 평가를 행할 것. 자기 점검 및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적절성 및 달성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평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절한 체제를 정비할 것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도의 사업평가 - 중간평가(지원기간 4년째: 2025년도) - 사후평가(지원기간 종료 후: 2028년도)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대학에는 국민・지역・관계자에 대한 설명과 책임을 부과하는 관점에서 성과발표회의 개최와 사업기간 중의 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기대함

3) 사업의 선정방법

(1) 심사체제・방법

- 심사는 일본학술진흥회가 설치하는 '지역활성화인재육성사업~SPARC~위원회'에서 시행
- 심사는 「서면심사」와 「면접심사」의 2단계로 시행. 서면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면접심사 대상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면접심사를 실시
- 위원회는 서면심사・면접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하고 선정 후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문부과학성에 추천. 문부과학성은 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사업계획을 결정

(2) 심사방침: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대학의 개혁방침을 토대로 본 사업의 자리매김 및 교육개혁의 실시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개혁의 현황과 과제가 충분히 파악 및 분석됨과 동시에 본 사업에 있어서의 계획이 그 해결과제와 연계하여 대학 전체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신청의 기초가 되는 교육개혁의 시스템은 충분한가? (교육개혁의 실적) ●앞으로도 상기의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인가? (앞으로의 교육계획) ●사업계획의 실현에 있어서 학내의 조직적인 시행 조직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총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정비, FD・SD 시행 체제의 정비, 학내의 주지를 철저하게 할 것)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파악 및 분석을 하여 사업계획의 개선과 수정을 시행하는 PDCA 사이클이 구축되어 있는가? (적절한 평가의 실시와 PDCA 사이클)
달성 목표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량적, 안정적인 목표는 타당하고 의욕적인 내용인가? (달성목표의 타당성) ●목표의 달성에 대한 과제가 충분히 파악・분석되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가? (시스템의 필요 충분성) ●사업계획은 달성 표,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시스템 및 앞으로의 방침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표 및 사업계획이 신청대학의 현황에 비추어 보아 실현 가능한 것인가?(사업계획의 실현성)

9) 再推 国公立大学通じた大学教育再生の戦略的推進(국·공·사립대학을 통해본 대학교육 재생의 전략적 추진)의 약칭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하(以下)'의 항목에 관한 사업 내용이 공모(公募)의 배경 및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가?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표 4〉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평가 기준																
	<table> <tr> <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 <td>지역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체제</td><td>- 산학관금(産学官金)에 의한 지역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지역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가?</td></tr> <tr> <td>대학 연계추진법인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대학 간 연계</td><td>- 대학 연계추진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있는가? - 각 대학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고 연계대학 간에 연계개설과목을 활용하는 등 고도의 연계를 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td></tr> <tr> <td>융합형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td><td>-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융합형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대학에서는 부족한 수업과목을 연계에 의해 서로 보완하고 사업 취지를 잘 살린 효과적인 연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td></tr> <tr> <td>지역과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가·도전하는 학생의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지역과제 PBL, entrepreneurship 교육 등)</td><td>- 지역학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과제나 기회가 있는지를 학생이 파악할 수 있는 수업과목이 계획되어 있는가? - 지역 활성화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도전하는 학생의 육성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가?</td></tr> <tr> <td>정규과목 내의 시스템</td><td>- 자유롭게 학생이 선택 가능한 정규과정 이외에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해당 학위 프로그램에 있어서 졸업요건이 되는 학점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td></tr> <tr> <td>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td><td>- 지역의 고등학교의 협력 아래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관련된 과목을 설치하고 고등학생에게 선행학습으로 이수를 시키는 등 본 사업과의 연계를 의식한 고대접속(高大接続: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관련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가?</td></tr> <tr> <td>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의 구축</td><td>- 개혁을 행한 학위프로그램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인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공헌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 STEAM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부에 대한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안이 2028년 4월 1일까지는 실시될 전망이 있는가?</td></tr> </table>	구분	주요 내용	지역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체제	- 산학관금(産学官金)에 의한 지역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지역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가?	대학 연계추진법인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대학 간 연계	- 대학 연계추진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있는가? - 각 대학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고 연계대학 간에 연계개설과목을 활용하는 등 고도의 연계를 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융합형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융합형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대학에서는 부족한 수업과목을 연계에 의해 서로 보완하고 사업 취지를 잘 살린 효과적인 연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지역과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가·도전하는 학생의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지역과제 PBL, entrepreneurship 교육 등)	- 지역학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과제나 기회가 있는지를 학생이 파악할 수 있는 수업과목이 계획되어 있는가? - 지역 활성화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도전하는 학생의 육성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가?	정규과목 내의 시스템	- 자유롭게 학생이 선택 가능한 정규과정 이외에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해당 학위 프로그램에 있어서 졸업요건이 되는 학점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 지역의 고등학교의 협력 아래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관련된 과목을 설치하고 고등학생에게 선행학습으로 이수를 시키는 등 본 사업과의 연계를 의식한 고대접속(高大接続: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관련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가?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 개혁을 행한 학위프로그램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인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공헌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 STEAM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부에 대한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안이 2028년 4월 1일까지는 실시될 전망이 있는가?
구분	주요 내용																
지역연계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체제	- 산학관금(産学官金)에 의한 지역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견고하고 지속적인 연계체제를 갖추고 지역이 원하는 인재상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가?																
대학 연계추진법인 제도를 활용한 고도의 대학 간 연계	- 대학 연계추진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있는가? - 각 대학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고 연계대학 간에 연계개설과목을 활용하는 등 고도의 연계를 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융합형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 지역사회가 원하는 인재육성에 필요한 융합형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대학에서는 부족한 수업과목을 연계에 의해 서로 보완하고 사업 취지를 잘 살린 효과적인 연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지역과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가·도전하는 학생의 육성에 기여하는 교육(지역과제 PBL, entrepreneurship 교육 등)	- 지역학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과제나 기회가 있는지를 학생이 파악할 수 있는 수업과목이 계획되어 있는가? - 지역 활성화에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도전하는 학생의 육성에 기여하는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가?																
정규과목 내의 시스템	- 자유롭게 학생이 선택 가능한 정규과정 이외에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해당 학위 프로그램에 있어서 졸업요건이 되는 학점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	- 지역의 고등학교의 협력 아래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관련된 과목을 설치하고 고등학생에게 선행학습으로 이수를 시키는 등 본 사업과의 연계를 의식한 고대접속(高大接続: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에 관련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가?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 개혁을 행한 학위프로그램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인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공헌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 STEAM교육을 기반으로 한 학부에 대한 재편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안이 2028년 4월 1일까지는 실시될 전망이 있는가?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도의 계획은 타당하며 구체적인 것인가? (연도 계획의 구체성) • 각 연도의 계획은 지원기간 종료 후의 달성 목표에 비추어 보아 적절한 것인가? (연도계획의 타당성) • 학내 체제, 전문인재의 배치나 학교 밖의 연계체제, FD・SD의 실시 등의 면에서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것인가?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계속성) • 자금계획의 면에서 지원기간 내에 사업의 수준과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것인가? (자금적인 사업 계획의 계속성) 																
사업성과의 선진성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는 일본의 고등교육 전체에 있어서 선진성(先進性) 을 가지고 있는가? (선진성) •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할 때 일본의 고등교육 전체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비용 대비 효과) • 선구적인 모델이 되어 사업을 파급시키는 방법이나 계획이 전망되는가? (파급효과) 																
각 경비의 세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경비의 내용은 명확하고 타당하며 계획상 필요불가결한 것인가? (경비의 사업 내용과의 관계성・정합성) • 과대한 건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건적의 타당성) 																
다른 공적 자금과의 중복 상황	<p>(※서면심사의 채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공적 자금과의 중복은 없는가? (다른 공적자금과의 중복성) 																

(3) 서면 심사기준

구분

주요 내용

평가 항목과 비중

평가항목

계수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① 대학의 개혁방침을 토대로 본 사업의 자리매김 및 교육개혁의 실시 기반

4.0

20

16

12

8

4

② 달성목표와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10.0

50

40

30

20

10

③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15

12

9

6

3

④ 사업성과의 선진성과 보급

2.0

10

8

6

4

2

⑤ 각 경비의 세부계획

1.0

5

4

3

2

1

자료 : 文部科学省, 令和 4 年度大学教育再生戰略推進費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 ~ SPARC ~ 審査要項.

• 서면심사는 평가항목 ①~⑤ 마다 <표 6>의 구분에 의해 판단함

• 서면심사 순위에 따라 면접심사 대상을 선출할 때 동점에 의해 선정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평가항목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함

평가 기준

구분

평가

a(5점)

매우 뛰어남

b(4점)

뛰어남

c(3점)

타당함

d(2점)

조금 불충분함

e(1점)

불충분함

자료 : 文部科学省, 令和 4 年度大学教育再生戰略推進費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 ~ SPARC ~ 審査要項

2. 일본의 SPARC사업 선정결과

1) 유형1: 학부 등의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표 7〉의 심사결과와 계획된 기록의 ☒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7〉 유형1: 학부 등의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

문서 번호	대학명	대상 지역	사업 계획서 이름	심사 결과	계획된 기록
1	야마나시대학	야마나시(山梨)	지식의 사회적 자본 (땅) ~ 야마나시현 학습 모델 ~ 건설 프로젝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신슈 대학	나가노	지역 활성화 선진 인재 육성 프로그램 "행복 신슈"를 만들기 위해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야마구치 대학	야마구치(山口)	사람과 지역 사회 (마을, 문화, 교육)의 복지에 공헌하는 인문학 DX 인재 육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 : 日本学術振興会, 採択事業計画一覧.

2) 유형2: 높은 수준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유형

〈표 8〉의 심사결과와 계획된 기록의 ☒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표 8〉 유형2: 높은 수준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유형

문서 번호	대학명	대상 지역	사업 계획서 이름	심사 결과	계획된 기록
4	기후 대학	기후	기후 지역 창발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적 기반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구마모토 대학	구마모토	구마모토의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DX 인재 육성 프로젝트 - 지역사회와 국공립 3개 대학의 연계를 통한 '구마모토식 인문 과학 융합 DX 교육' 구축을 목표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미야자키 대학	미야자키(宮崎)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다양한 미래 공동 창조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료 : 日本学術振興会, 採択事業計画一覧.

3. SPARC사업 선정 대학별 세부 사업 내용

1) 야마나시 대학의 SPARC 사업

야마나시대학(山梨大学)과 야마나시현립대학(山梨県立大学)은 양교의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야마나시현(山梨県)에서
배움에 대한 의의를 배우고 학습을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의 '침체로부터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인 '야마나시 학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 사업 배경

야마나시대학에서는 인문학과 과학의 범위를 넘어 폭넓은 교양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코스를 개설하고, 야마나시현에서는
지역에 대한 연구와 실천적인 지식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코스를 공동 코스로 개설하여, 자신의 학부와 학과의 수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교육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생들의 트렌드에 맞춰 STEAM
교육을 전개하여 모든 학생이 STEAM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2) 사업 내용

지역 연계 플랫폼인 '지역인재양성추진회'를 설치해,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하는 지역의 인재육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테스트하여 지역협력플랫폼에서 수행하는 상황을 발표와 보고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의견과 권고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복습하도록 한다. 야마나시대학은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부의 공동 강좌인 새로운 '공생과
창의력이니셔티브'(가칭)를 신설하고, 야마나시현립대학은 지역의 요구에 입각하여 인적서비스인 제조업과 DX인재육성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한 교육을 도입한다.



[그림 10] 야마나시대학·야마나시현립대학의 SPARC 사업 개요

자료: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山梨の取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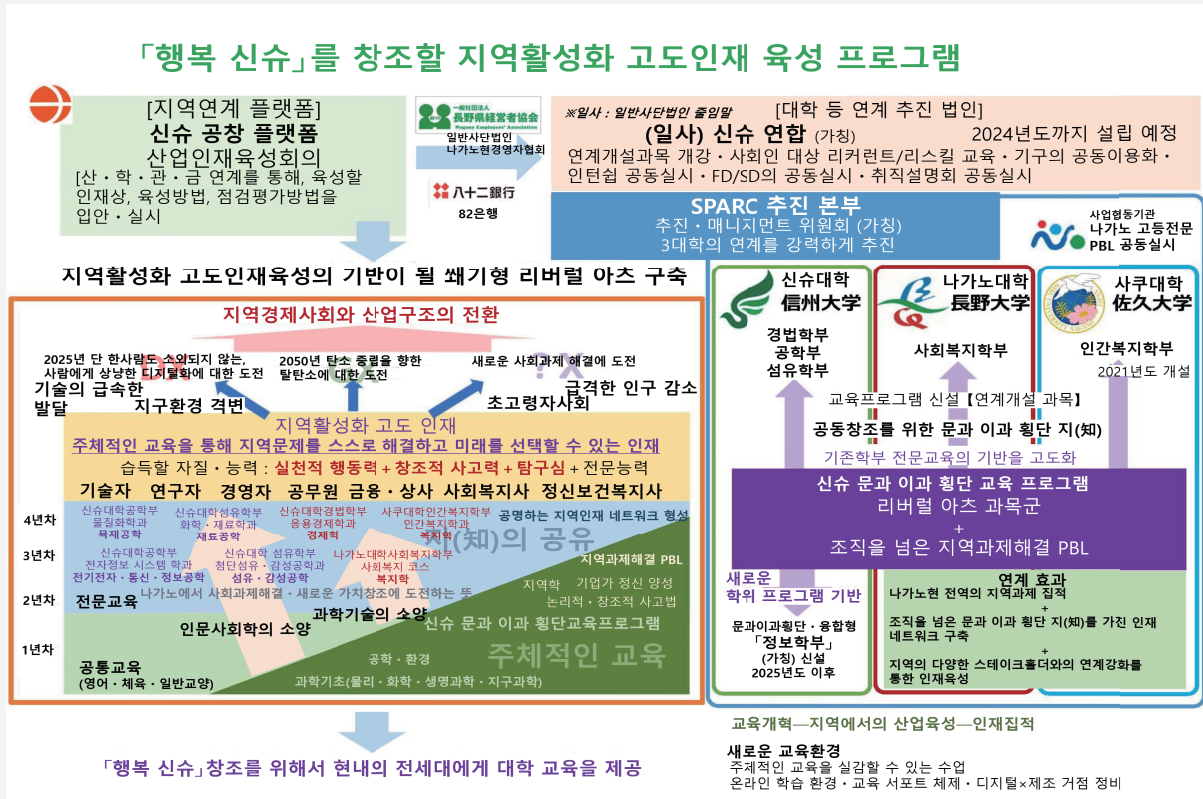
(3) 사업 목표

지역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강화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연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교육 및 리커런트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리커런트 교육(평생교육)을 통해 학습기회를 널리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県)내의 학습 기회로 이어지는 이벤트나 심포지엄에 공동 주최 및 후원의 형태로 참가하여 학습 기회를 집중화하고 이를 리커런트 교육(평생교육)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고등학교, 대학, 기업 간의 교육 연계

다양한 세대의 참여자들이 고교, 대학교, 기업 등 세대를 넘나들며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Future EVO'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은 대학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고등학생과 고교 교사는 연구 활동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지역의 고등학교나 기업이 대학이나 배움의 장소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핵심으로 구축해, 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환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함께 성장함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체계인 '야마나시 학습 모델'을 구축해 갈 계획이다.

2) 신슈대학, 나가노대학, 사쿠대학의 SPARC 사업



[그림 11] 신슈대학·나가노대학·사쿠대학의 SPARC 사업 개요

자료: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長野の取組)

(1) 사업 목표

나가노현이 직면한 과제는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의 현(県)밖으로의 인구 유출, 나가노현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이다. 나가노현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정보와 디지털의 스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감성이 풍부한 DX나 GX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업 내용

○ 융합 교육과정

나가노현의 지역과제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립대학인 신슈대학, 공립대학인 나가노대학, 사립대학인 사쿠대학, 나가노현의 나가노고등전문학교, 나가노현의 경영협회, 82은행 등 산·학·관·금과 연계하여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대상이 되는 학부 및 학과는 신슈대학의 '경제학부응용경제학과, 공학부물리화학, 공학부전자정보시스템공학과, 섬유학부첨단섬유·감성공학과, 섬유학부화학·재료학과' 와 나가노대학의 '사회복지학부', 사쿠대학의 '인간복지학부, 인간복지학과'이다.

○ 챗봇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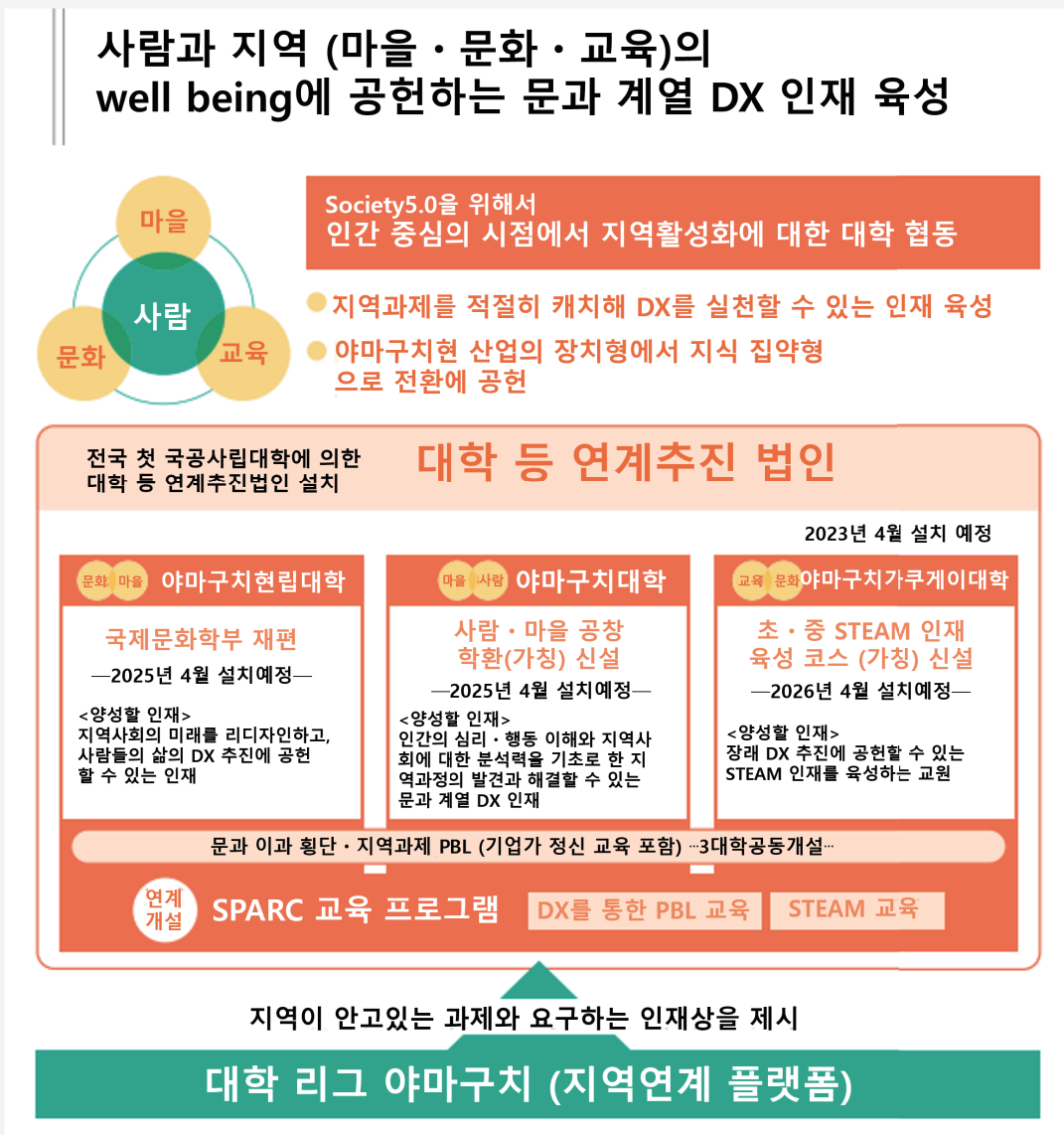
2023년도에 일반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2024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시에 대비해 제공되는 강좌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문형 비디오 활용을 전제로 하여 강의 녹화를 진행한다. 대상 학생들이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챗봇과 LMS를 사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챗봇이 질문에 응답하며, LMS가 자동으로 퀴즈를 관리하고 채점하여 교직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학협력수업

주 4일은 기업에서 활동하고 주 1일은 대학에서 특별 세미나를 수강하는 형태로 현장과 대학을 순환시킨다. 이것은 6개월간의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신슈대학과 주식회사 일본인재기구, 일반사단법인 Lamphi, SCOP(신슈대학에서 만든 벤처기업), 주식회사 마츠모토 야마가(松本山雅)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수행한다.

3) 야마구치대학의 SPARC 사업



[그림 12] 야마구치대학·야마구치현립대학·야마구치가쿠게이대학 SPARC 사업 개요

자료: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山口の取組).

(1) 사업 목표

‘미래창조협의회’는 미래를 지탱하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개인의 다양한 행복과 사회 전체의 안녕을 꾀고 있다. 이 복지의 개념에 입각하여, 디지털 엔지니어와 연계하여, 사람과 지역(마을·문화·교육)의 과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문학 DX 인재’라고 부르고, 이러한 인재를 야마구치대학(山口大学), 야마구치현립대학(山口県立大学), 야마구치가쿠게이대학(山口学芸大学)의 3개 대학과 연계하여 육성한다.

(2) 사업 내용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COC+사업)’을 통하여 지역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구현한 3개 대학 공통의 ‘SPARC 교육 프로그램’에서 습득해야 할 자질과 능력을 설정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STEAM 인재육성 시리즈’와 ‘DX를 통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PBL그룹’으로 구성되며, 3개 대학으로 구성된 ‘협력교육사업위원회’를 설치해 ‘SPARC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실시하여 대내외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3) 본 사업에서 각 대학이 육성하는 인재상

○ 야마구치 대학(山口大学)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와 지역 사회를 분석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문학 DX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SPARC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DX 인재’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학 등의 분야와의 학제 간 연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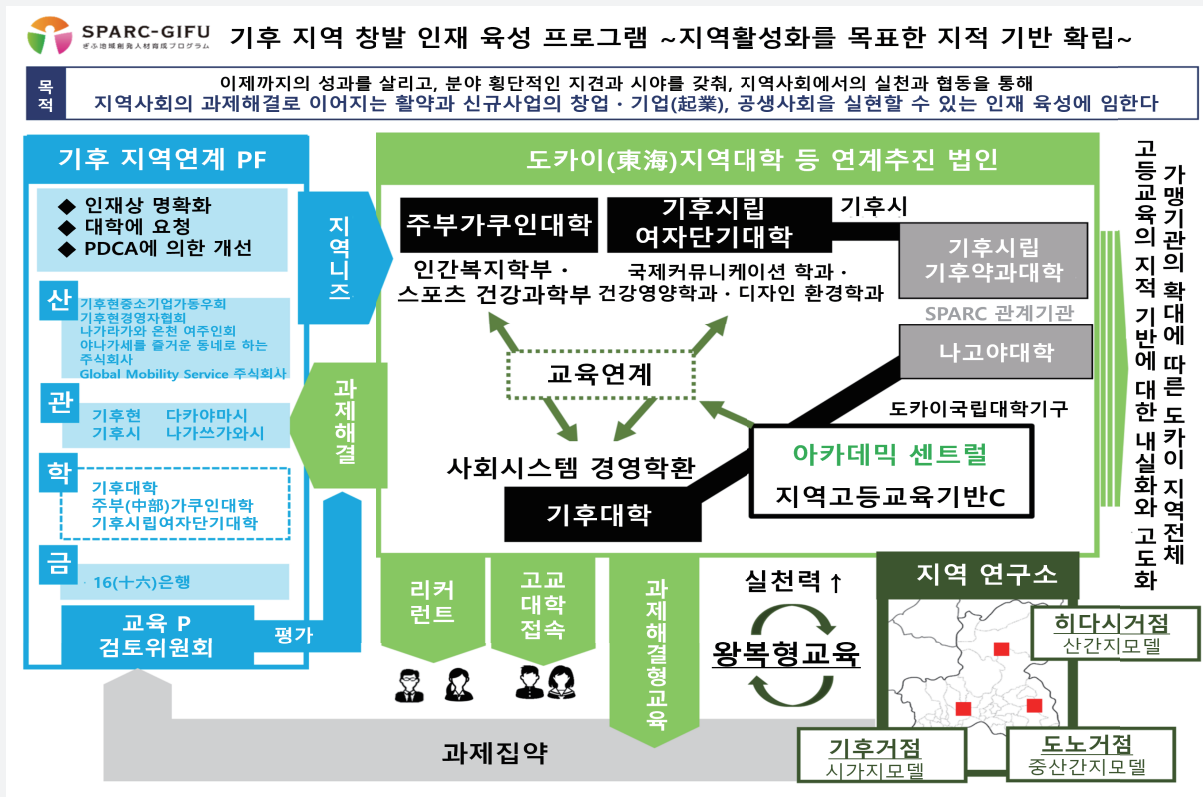
○ 야마구치현립대학(山口県立大学)

지역 사회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DX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가 팀을 이루어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날의 기업 활동에서는 공학, 경제, 경영의 관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감성과 행복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인간 활동을 분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문 과학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 지식, 스킬을 활용한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ICT, AI, 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로 과제 해결에 임할 수 있는 ‘인문학 DX 인재’를 육성한다.

○ 야마구치가쿠게이대학 : 향후 DX의 진흥에 공헌할 수 있는 교원 육성

다가오는 Society5.0 시대를 대비하여 앞으로는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관점을 제시하는 능력,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에 접근하는 유연성 등 인문학과 과학을 넘나드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과제 해결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장래 DX의 추진에 공헌할 수 있는, STEAM 인재를 육성하는 교원을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4) 기후대학, 주부가 인대학, 기후시립여자단기대학 SPARC 사업



[그림 13] 기후대학·주부가쿠인대학·기후시립여자단기대학의 SPARC 사업 내용

자료: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岐阜の取組).

(1) 사업 목표

기후현(岐阜大学)을 비롯한 현(県)내의 전략 문서에 따르면, 노동 연령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인구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산업의 창업도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현(県) 내의 대학과 전문대학은 주민과 학생의 교류와 지역 과제를 테마로 한 실천적인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 과제해결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대처를 바탕으로 기후대학(국립)이 책임 대학이 되어 2022년도 기후(岐阜)지역의 창생인재육성 프로그램인 'SPARC-Gifu'가 채택되었다. 그 결과, 'SPARC-Gifu'는 지역 과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며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나고야대학(名古屋大学)과의 연계강화와 기후약과대학(岐阜薬科大学)과의 교육 자원 공유 및 협력 기관의 확대를 통해 도카이(東海)지역 전체의 고등 교육의 지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사업 내용

○ 공유 교육과정 운영

'SPARC-Gifu'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기후대학(岐阜大学), 주부가쿠인대학(中部学院大学), 기후시립여자단기대학(岐阜市立女子短期大学)이 각 대학의 수업을 공유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한 커리큘럼으로 대학 단독으로는 실시할 수 없는 지역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폭넓은 커리큘럼으로 재편한다.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참가대학 사이에 새로운

대학과 관련된 연계 추진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교육 자원의 공유에 임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대학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현의 산업, 관광, 대학,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연계 플랫폼을 형성하여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현(県)내 각지에 ‘지역 연구소’ 설치

기후현의 지역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학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시(岐阜市), 나카쓰가와시(中津河市), 다카야마시(高山市)에 ‘지역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는 지역 실습의 거점이자 각 지역의 고등학생과 사회인을 위한 프로젝트의 무대가 될 것이다. 지역 연구실에서는 교원과 지역을 지원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지역 연구실을 무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지역 과제에 맞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현 전역에 발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도카이 지역 전체에의 파급

‘SPARC-Gifu’의 참가 대학 외에도 도카이(東海) 지역의 국립대학인 나고야대학과 기후대학 부근에 캠퍼스 전체를 이전할 예정인 기후약과대학도 교육자원의 공유에 참여하여, 협력 기관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SPARC-Gifu’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카이지역 전체의 고등 교육의 지적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구마모토대학과 구마모토부립대학의 SPARC 사업

(1) 사업 목표

구마모토현(熊本県)은 반도체 제조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와 글로벌화가 기대되며, 반도체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인재 공급이 시급하다. 특히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DS/DX(Data Science Digital Transformation)의 배경지식을 겸비한 인재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 Society 5.0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의 DX를 추진하는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나 관련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2) 사업 내용

○ 첨단 및 금융 연계 강좌 개설

현대 사회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나 공급망,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은 제조업 이외에도 정부나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벌 교육에 교양교육이 연계된 강좌 ‘현대 사회와 반도체(가칭)’를 신설해, 데이터 사이언스, 반도체 관련 분야의 연계 강좌를 개설한다.

○ PBL 필수과목화 및 창업 강좌 공동 개발 운영

지역 과제에 대해서는 구마모토현(熊本県)의 경제 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학이 각 학위 프로그램에 지역과제에 관한 PBL을 필수 과목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글로벌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DX 시대에 적합한 창업 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시한다.

○ 구마모토대학(熊本大学)의 핵심 교육 프로그램: 정보융합 학제간 프로그램 설치 운영

2024년에 학생들이 소속된 새로운 학사 프로그램인 정보융합 학제 간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보융합의 학제 간 구상에는 DS 종합코스와 DS 반도체 코스가 있으며, 졸업 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기업이나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DS 종합코스에서는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한 커리큘럼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정보처리, 통계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사회의 DX과제의 해결을 폭넓은 관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DS 반도체 코스는 기초데이터 사이언스 외에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지식의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구마모토현(熊本県)에 진출함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14] 구마모토대학·구마모토현립대학 SPARC 방안 내용

자료: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熊本の取組).

6) 미야자키대학, 미나미큐슈대학, 미야자키국제대학, 미야자키가쿠인단기대학의 SPARC사업



[그림 15] 미야자키대학·미나미큐슈대학·미야자키국제대학·미야자키가쿠인단기대학의 SPARC 사업 개요

자료: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宮崎の取組)

(1) 사업 목표

미야자키대학(宮崎大学), 미나미큐슈대학(南九州大学), 미야자키국제대학(宮崎国際大学), 미야자키가쿠인단기대학(宮崎学院短期大学)의 4개 대학과 지자체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농림수산, 식품비즈니스, DX/AI 비즈니스, 지역의료, 지역수익학, 지역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미래의 공생 인재 육성(미래의 공동 창조를 위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2) 사업 내용

○ 미래의 공생 인재 양성

「미래 공동 창조 능력」이란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생각하는 능력과 「조감도와 구상력」으로 사회를 파악하고 STEAM과 인문학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구상하는 능력,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의 연결을 통해 커뮤니티와 미래를 연결하고 실현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미래 공생 인재」라고 한다.

○ 미야자키현 산업 인재 육성 플랫폼 구축

미야자키현(宮崎県)의 산·학·관·노(노동계)·금(금융계) 등 13개 기관이 조직한 이번 ‘미야자키현 산업 인재 육성 플랫폼’과 4개 대학이 공동으로 ‘대학에 필요한 인재 육성상’을 제정해, SPRAC 졸업생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인재가 된다.

(3) 교육 프로그램: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4개 대학은 교양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STEAM, 학제 간의 통합적이며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능동적 학습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 과정과 수학 및 데이터 과정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미야자키대학(宮崎大学)은 ‘미래의 공동 창조를 위한 인재 육성’의 열쇠가 되는 ‘미래 공동창조코스’를 신설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은 구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개념 및 디자인 과정”과 개념을 실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협업 및 창조 과정”의 두 가지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장기 인턴십 및 지역 분야를 활용한 PBL(Project Based Learning) 수업을 개설한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이 정신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각 대학의 전문 분야의 특성을 살리고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교양교육과 전문교육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협업 과정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9개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한다.

(4)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4개 대학과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과 FD/SD 공동 활동을 통한 교수학습관리 강화를 통한 교육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인재육성 플랫폼 내에 “학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및 산업계와 연계하여 ‘미래의 공동 창조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동시에 플랫폼이 운영하는 성인 교육 「히나타 MBA」를 중심으로 한 연계 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교육의 기능을 강화해 간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결고리로서 ‘고교연계협의회’를 설치하여 고교연계 사업을 강화해, 현(県)내의 고등학생 및 고교 교원과도 연결한다.

V. 우리나라 지방대학-지역활성화 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협력 기반 지방 활성화 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들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살펴본 일본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지방정부 기반 고등교육 협력사업의 성공적 운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대학 협력 기반 지방 활성화 정책**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지방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다만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강구된 것은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37호, 2014. 1. 28., 제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지방육성법 제5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제6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두 차례 수립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을 대상으로 한 1차 계획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목적을 두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인재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지방대학 입학·교육 기회 확대,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 대학·인재 활용을 위한 지역사회(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교육부 2015). 2차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되어 2025년까지 시행되고 있다.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핵심 축으로서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계획은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부, 2021).

〈표 9〉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순유출 발생. 수도권으로 이탈은 직업> 교육>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대학 진학단계(10대)에서의 1차 유출, 구직단계(20대)에서의 2차 유출 모두 증가 추세 - 30대 이후는 문화, 자녀교육, 의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좌우 •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는 수도권과 지방간 ‘기울어진 운동장’ 초래,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소재지 및 규모, 특성별로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및 연구개발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이탈 유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지방대 우수인재 유입의 어려움 가중 - 최근 5년간('16~'20) 대학별 미충원은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 국립대<소형사립대에서 심화되는 추세 - 대학의 체질 개선 및 특색 있는 지방대를 집중 육성하여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비수도권 청년 1차 유출방지에 주력, 동시에 지역사회 내 청년 취업여건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의 2차 유출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업 추진
비전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공동체 • 목표: 대학과 지역이 함께 하는 혁신인재 양성
정책 영역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혁신: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인재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전환 지원 - 혁신선도자로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전략적 특성화 지원 - 대학의 질적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지역혁신: 일자리와 활기가 넘치는 매력적인 지방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캠퍼스 등 공간 혁신 -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지역인재 친화적 취·창업 환경 조성 협업 •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간 협업기반 구축 - 중앙-지자체 협력 활성화
핵심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상생, 지속가능성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사업은, 지자체, 대학,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에 운영이 시작됐다. 학생에게는 폭넓은 학업의 장을, 기업과 대학에게는 인재 양성의 기회를, 지역에서는 발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2020년에 신규 공모를 통해 충북(단일형), 경남(단일형), 광주·전남(복수형) 플랫폼을 선정했고, 2021년에는 추가로 대전·세종·충남을 선정, 울산·경남이 복수형으로 전환, 2022년에는 강원과 대구·경북을 선정하면서 현재 6개 지역혁신 플랫폼(11개 시도)을 지원하고 있다.

〈표 1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지원대상 •9개 지역혁신플랫폼(계속지원 6개, 신규지원 3개)
	사업기간 •'23. 4. 1. ~ '24. 2. 29. (전체 사업기간은 선정시부터 5년)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 3,540억 원(사업관리비 12억 원 포함) - 계속지원 플랫폼 6개 2,520억 원 내외, 신규지원 플랫폼 3개 900억 원 이내 - 전체 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
사업비 배분 및 관리	사업비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사업비는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구성 •국고는 사업위탁기관을 통해 총괄대학(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하며, 지방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괄대학(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 교부
	사업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사업비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총괄대학'이 총괄관리 •전체사업비 중 ①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은 '총괄대학'이 총괄 계정과 분리된 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관리 •전체사업비 중 ②핵심분야별 팀 예산은 각 '중심대학'에 재교부하고, 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
성과 평가 및 성과 관리	성과평가 •연도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협약사항 이행여부, 추진상황 및 성과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성과지표 수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핵심지표) 사업의 핵심가치(개방과 참여, 공유와 연계, 성과와 지속가능성)를 고려한 공통 성과지표 •(자율지표) 플랫폼별 사업계획에 따라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중점 관리(5개 내외)

자료: 교육부(2022).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3년 RIS 4차년도를 맞아 각 지역혁신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공유대학 및 취업지원 사업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사업이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RIS와 RISE의 가장 큰 차이를 전자는 '사업'인 반면 후자는 '시스템'이다. 즉, RIS가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RISE는 RIS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 중심으로 이양하여 지역 기반으로 재편하는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교육부가 지자체로 넘기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학활성화사업으로 모두 5개이며, 이들 5개 사업은 2025년 3월말(예정) 대학으로의 직접 지원이 중단된다.

RIS(4차년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와 RISE(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1차년도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의 주요 특징을 비교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두 사업은 '23년~'25년 상반기까지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RIS 사업은 '25년 상반기 이후 RISE 체계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표 11〉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내용

구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자체 주도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안)
사업목적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대학을 허브로 교육청, 산업계 등이 참여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혁신 도모
사업내용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1)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2)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3)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a)교육체계를 개편하고, (b)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지역혁신을 위한 협력체계를 지자체 주도로 운영하고 지자체-지역혁신플랫폼 간 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 등 지원
'23년 사업기간	•'23. 4. 1. ~ '24. 2. 29. ※ (전체기간) 선정 시부터 5년(3+2)	•선정 시 ~ '24. 2. 29.
국비 및 산출내역	•3,420억 원 - (계속, 2,520억 원) 480억 원 × 복수형 4개 + 300억 원 × 단일형 2개 - (신규, 900억 원) 300억 원 × 단일형 3개 ※ 전체사업비(국비+지방비)의 30% 이상 지방비로 부담	•120억 원 •40억 원 × 3개 지역혁신플랫폼 ※ 전체사업비(국비+지방비)의 50% 이상 지방비로 대응
사업유형	출연	•보조(지자체)
지원대상	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플랫폼

자료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2023.2.).

RISE는 인구·산업구조의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이 필요한 시점에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내용은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다. RISE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며,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12〉 참고).

〈표 12〉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구분	내용
개요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23년~2024년 총 5개 내외 시·도에 시범적 적용 후 2025년 기준 전 지역 도입
비전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목표	•대학이 살리는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지역이 키우는 대학: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
전략	•(재정)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 •(지역대학)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대학 지원,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대학 육성 •(규제·권한) 2023년~2024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과감한 규제 개혁 •(추진체계) (시도) 대학지원 전담부서, 전담법인,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중앙)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법령) 지방대 육성법 개정 •(교육부 역할 대전환) 규제개혁, 재정개혁, 구조개혁 + 범정부적 지역주도 정책 강화(지역소멸 방지,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구분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지역혁신플랫폼 사업(RIS),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대학혁신지원사업 III 유형인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을 전면 통합하여, 2025년 이후 RISE 사업의 하위 메뉴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단계적
통합방안

대상 사업	'23 예산(억원)	'23~'24(시범 지역)	'25년 이후
1 RIS(지역혁신)	3,540	5개 지역 내외 RISE 전환	RISE로 통합* * RISE 사업의 하위메뉴 사업 전환가능
2 LINC 3.0(산학협력)	4,070	지자체-대학간 협력 강화 대학 사업추진시 지자체 의견 반영 지자체 대학의 사업 지원	
3 LiFE(대학평생교육)	510		
4 HiVE(전문직업교육)	900		
5 지방대학활성화	2,500		
(예산 총계)	11,520억원(국고 기준)		

2023년 3월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 시범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 RISE 시범 지역으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군은 광역지자체 내 대학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수요 기반의 재정지원 계획을 제안하며, 교육부 및 타 부처와 지자체 간 RISE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 정주형 취·창업 연계 등 교육모형을 실행하게 된다.

〈표 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주요 내용

구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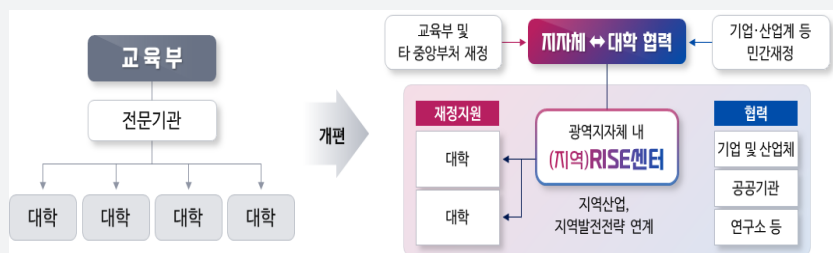
-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RISE 예산으로 전환 추진)
- 정책메뉴판 등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간 연계 추진, 대학의 자원 확보
- 지자체 계획 수립 등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 지원

사원증
구조사업비
사업비



1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
확대

지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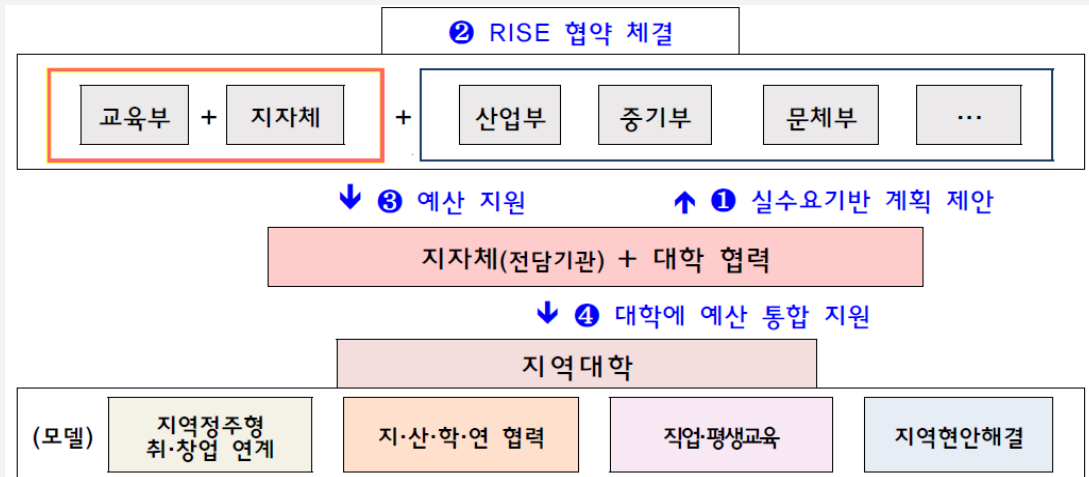


구분

내용

-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 추진
-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를 고려하여 실수요 기반 대학 지원계획 수립 - RISE 협약 체결·실행 - 대학 지원 -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2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
지원 확대



3
규제
개혁으로
대학자율
및 지자체
대학지원
권한 확대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각종 규제 특례 적용
(교직원 인사·학기단위, 특별채용 허용 등/ 학사운영-공동교육과정 학점기준 완화, 학교 밖 이동수업 규제 완화 등)
- 시·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한 지자체 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사업관리 등 진행
-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법령·부령·지침 등 신속 개선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 활용)

-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조직(부서 및 기관) 신설

4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주도 대학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 및 법률 개정
-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 신설, 지방대 육성법 개정,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5년 단위) 수립 내실화(중앙부처 대학지원사업 연계·통합, 지자체 의견 수렴 등)

4) 글로벌대학30

RISE와 더불어 지역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글로벌대학 육성 계획도 발표하였다. 교육부(2023)는 글로벌대학의 개념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며,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분야의 세계적 대학”으로 규정하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2027년까지 30개 내외의 글로벌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하며 대학 1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받는 대규모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6월에 15곳을 예비 선정하고, 2023년 11월 13일 1차년도에 최종 참여할 10개 글로벌대학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표 14〉 글로벌대학30 육성 계획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역-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동반 상승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은 국제사회와 연결 •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 • 불확실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
개요	<p>[글로벌대학 30]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지방대육성법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행·재정 지원) • 규모 : 5년간 대학당 1,000억 원 규모 지원, 2023년까지 10개 내외 선정 및 매년 5개교 내외 선정으로 2027년까지 30개 내외 글로벌대학 확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외부: 지원전략 혁신 • 대학 내부: 대학 구조 운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 최정에 혁신 선도 대학 집중 지원(자율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 재정 개혁, 구조개혁) - 범부처, 지자체 간 장벽 없는 지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선정을 통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산업계 집중적 육성 지원 -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지원: 글로벌대학위원회 운영 및 심의 - 지능형 선정 및 성과관리: 실현 가능한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 담보, 디지털 기반 성과관리 - 산학, 지역 협력 중심화: 지역 산업·사회 수요 고려한 교육혁신, 지역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허브 역할 - 대학 내외부 벽 허물기: 외부 요구 수용을 위한 대학 거버넌스 개방, 대학 내부 체제 개편(유연한 학사 운영) -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혁신 실행체계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전략 -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 지역 기여도·영향력 분석과 공개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의 성과와 한계

RIS사업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권 강화,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대학 간 공유협력 등의 측면에서 이전 사업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런데 RIS사업은 단위기관당 지원 액수가 가장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작 단계부터 기대와 우려가 매우 컸다. 지원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주체들이 많다는 것과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학이 교육, 연구, 봉사 등의 기능을 토대로 지산학 협력을 이끄는 중핵이 되어 지역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규범적 논의는 많았지만, 관련 주체 간의 '기능적 협력'이나 '성과 책무'에 대해서 확산가능한 모델의 창출이나 성공적 경험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사업을 이끄는 두 축인 지자체와 국가거점국립대라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표를 인식하는 가시적 단기성과 중심의 지자체와 '교육'이라는 사회적 유지 기능을 본질로 하는 대학, 두 기관 간 기능 충돌 역시 협력의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2020년 사업이 시작되어 아직 가시적 성과를 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주축인 핵심 분야 선정, 지역협업기관과 대학 연계 및 이들의 조정자 역할, 지방비로 전체 사업 예산의 30%를 충당하게 하는 등의 측면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성과를 가진다고 평가받는다(최정윤 외, 2022: 242).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별·대학별 협업 기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지역별 고등교육 분야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RIS사업 운영 지역 대학에서는 공유대학 구축·운영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환경 개선 등 공유대학 운영 등을 본격화하였다.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혁신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랩,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플랫폼이 갖춘 인프라·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재직자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기술 이전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 역할 모호 및 참여 부족, 사업비 집행상의 제약,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 미흡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장차 RISE체제 하에서 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사업을 운영할 경우 과연 지자체 역량에 대한 우려와 지자체 역량 수준에 따라서 지역별 격차 확대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상당하다. 지자체는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담당 조직(전담팀) 및 인력, 재정 등이 부재하고, 파견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행정관이 RIS사업 운영 조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만 이들이 대학 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최정윤 외, 2022: 243). 재정지원금액 규모는 크나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구조가 복잡하고, 집행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학 외 기업, TP 등 지역혁신기관의 참여가 어렵다. 또한 중심대학 외의 기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기 어려워 대학 외 기관의 참여 저조, 대학회계(교비회계)를 사용하여 사업비 관리만을 위한 인력 소요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표 15〉 RIS사업의 성과와 한계

구분	주요 내용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대학 구축·운영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강의환경 개선 등 공유대학 운영 본격화 지역별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모델 수립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지정)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22년 지정) 대전·세종·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 (충북) 바이오헬스 분야 검임교원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학기단위 임용, 특별채용 절차 특례 -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참여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2분의 1 이내 → 4분의 3 이내)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 - (대전·세종·충남) 현장실습비 지원비율을 높여(최저임금의 25% → 50%) 현장실습 확대 - (대전·세종·충남) 일정 조건 충족 시 캠퍼스 밖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증 교육과정 운영

구분	주요 내용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플랫폼이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랩,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창업 지원 • 지역혁신플랫폼이 갖춘 인프라·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재직자 재교육, 애로기술 해결, 기술 이전 등 지역 발전에 기여
고등교육 관련 지자체 결정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사업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권 강화,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대학 간 공유협력 등으로 이전 사업과 차별화 • 특히 지자체의 권한 강화 측면에서 진전(사업의 주축인 핵심분야 선정, 지역협업기관과 대학 연계 및 이들의 조정자 역할, 지방비로 전체 사업 예산의 30%를 충당하게 하는 등)(최정윤 외, 2022: 242)
지자체 역할 모호 및 참여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연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지역의 요구가 명확히 해소되지 못함(교육부, 2023.2) • 지자체는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담당 조직(전담팀) 및 인력, 재정 등이 부재하고, 파견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행정관이 RIS 사업운영조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만 이들이 대학 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최정윤 외, 2022: 243)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도모 필요
한계	
사업비 집행상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구조가 복잡하고, 집행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대학 외 기업, TP 등 지역혁신기관의 참여 어려움 • 중심 대학 외의 기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기 어려워 대학 외 기관의 참여 저조, 대학회계(교비회계)를 사용하여 사업비 관리만을 위한 인력 소요가 큼 •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외에 인건비·기자재 구입비 등 실제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의 참여 촉진 어려움
성과지표 선정 및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성과지표가 투입·과정 지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역혁신 정도 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족

3. 일본 대학의 지역 활성화 인재육성 사업이 주는 시사점

1) 지방대학의 기능적 특성화 기반의 지역인재육성 정책 추진

문부과학성은 2015년 일본의 중앙교육위원회 대학분과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미래를 선도할 대학교육 정책의 한 방안으로 '3개 대분류'에 기초하여 국립대학의 기능적 차별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립대학은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겨룰 수 있는 교육·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대학'(16개 대학), '각 분야별 우수한 교육거점 및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대학'(15개 대학),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대학'(55개 대학)의 3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 글에서 살펴본 COC, COC+, COC+R, SPARC 등의 사업은 위의 분류 가운데 세 번째 그룹의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Lee, et. al., 2023: 22).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이나 RISE체계의 지향점을 COC, COC+, COC+R, SPARC 등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 국립대학의 3개 분류체계를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적용해 본다면 국가거점 국립대학은 첫 번째 그룹에, 지역중심 국립대학 가운데 일부는 두 번째 그룹, 상대적으로 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캠퍼스)이나 교육대학 등은 세 번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국립대학간 통폐합을 기반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경우 기능적 특성화를 기반으로 사업 내 대학간에 거버넌스 및 구조 개혁 방향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일본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지향교육의 성과와 한계 인식

COC 및 COC+정책에서 시행된 ‘지역지향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내 취업자 비율 증가와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있다(小山治, 2023).¹⁰⁾ 이는 고등교육정책의 개입만으로는 지역의 신규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구조와 학생들의 진로 선택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입학자 비율 또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회협력기관의 기부 강화 수를 늘리거나 지역지향과목을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 진학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지역지향과목(지역교육)은 출신 대학 소재지로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정책이 지역 사회에 대한 애착을 높이는 것이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최선의 방법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관계인구의 확대나 지역정착 가능성의 제고와 같은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Yamaguchi, 2019; Lee, Hanada, 2022; Tahira, 2017; Kitamura, Tominaga, 2018을 인용한 Lee, et.al., 2023: 25에서 재인용; 小山治, 2023). 또한 지역지향교육의 지역애착 효과는 지역 내 출신자보다는 지역 외 출신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향후 이주와 정착의 옵션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¹⁾

〈표 16〉 일본 COC+사업 협력기관간의 연계 강화

	대학	지방공공단체·기업 등
① 지역 산업활성화, 인구집적을 위해, 대학군, 지자체, 기업 등의 과제(니즈)와 자원(시스) 분석		
② 고용창출·취직률 향상의 목표치 설정		
③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의 이해 (대학 전체 지역지향과목 필수) 전문적 지식의 습득과 지역을 필드로 한 철저한 과제해결형학습에 따른 지역 이해력과 과제발견·해결능력의 습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가교원 파견 재정지원 필드워크나 인턴십, PBL 등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 제공 등
④ 교육 프로그램 구축·실시➡	➡	
〈성과〉 사업협력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사업협력지역에 대한 취직률 향상	➡	청년층 인구가 도쿄로 초집중하는 현상 해소

3) 전지역적 노력과 협업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 RIS사업에서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는 기업과 연계 경험이 부족한 대학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어 지역의 요구가 명확히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교육부, 2023.2). 또한 지자체는 대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담당 조직(전담팀) 및 인력, 재정 등이 부재하고, 파견 제도를 이용해 지자체 행정관이 RIS 사업운영조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만 이들이 대학 내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정윤 외, 2022: 243)

10) 코야마 오사무는 COC+ 사업 결과, 지역 내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COC+ 신청서류인 계획조서, 중간평가 제출서류인 중간평가조서, 사후평가 제출서류인 사후평가조서, 데이터가 공개된 국립대학들을 토대로 2014~2019년도 지역 내 취업자(사업 협동 지역 취업자) 추이, 지역 내 입학자 비율 추이를 대학 전체별, 대학 개별로 분석(정량적 부분)하였다. 그 결과, 분석 대상 전체로 보나 개별 대학으로 보나 지역 내 취업자 비율과 입학자 비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다는 분석을 내렸다(오히려 취업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1) Lee, et. al. (2023)의 연구에서는 COC 및 COC+정책에서 시행된 ‘지역지향교육’의 교육효과를 아오모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지향교육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지역애착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내 출신자와 지역 외 출신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지향교육의 지역애착효과는 지역 외 출신자들에게 국한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향후 이주와 정착의 옵션으로 간주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청년의 지역 정착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총자산을 동원하는 전(全)지역적 노력이 필요하다(Lee, et. al., 2023).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지역의 지자체, 대학, 기업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협력적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일본의 COC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대학의 지(知)를 지역재생·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부과학성’과 ‘관계부처’ 간 시책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각각 대학과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협력적 지원을 토대로 결국 지역기업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들이 모두(all) 협력하여 청년 지역정착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et. al., 2023).

이와 동시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대, 즉 ① 지역의 과제 해결에 부응하는 교육 연구를 함, ② 학생이 지역사회에 나오고 나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함, ③ 교원 개인의 연계에서, 대학이 조직적으로 임하는 연계 체제로 발전시킴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COC+사업에서는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대학과 도교 소재 대학 간 협업을 추가하고 역할과 기능 분담을 제시하였다. 즉, 지방대학은 지자체와 중소기업 등과 협동하여 지역의 고용창출과 학부 졸업생의 지역 정착률의 향상을 추진하고, 도교 등의 대학은 지방대학과 지방공공단체·중소기업 등과 협동하고 지방의 매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회협력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COC+ 추진 코디네이터 배치를 강화하였다.

4) 성과목표의 명료화

〈표 17〉 일본 COC사업의 대학에 대한 기대와 성과 목표

대학	성과 목표	활동 예시
대학 전체 종합적인 발전 방안	지역 인재 육성·고용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재생·활성화의 중심이 될 인재양성 •고령화사회에서의 교육과 교류장 제공
↓	지역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교육 지원 •육아 지원 •상점가 활성화 활동
→	산학연계와 지방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 환원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
미래지향적 교육 커리큘럼·교육조직 개혁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협력기관이 협업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대학력(교육·연구·사회공헌) 집결을 강조하였다. COC사업 시작 단계부터, ‘대학(거버넌스) 개혁’, ‘대학 기능별 분화’을 토대로 대학 전체적으로 지역을 지향한 교육·연구·사회공헌을 추진하였다. 이후 전개된 COC+사업의 경우 지방/도교의 경제격차 확대와 도교로 초집중되는 현상과 청년층의 지방 유출 문제 해결에 보다 집중하고, “학생에게 매력있는 취직처 창출 및 개척과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데구치 히데키(出口英樹)는 2021년과 2022년 논문에서 COC / COC+ 사업과 같은 대학지원정책에는 ‘대학전체적인 교육개혁’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대학의 특징은 대학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개혁과 교육자원의 재분배, 학내 거버넌스의 정비 등에서 대학의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코야마 오사무(小山治)는 데구치의 사업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COC+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사업협력지역 취업률을 간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COC / COC+ 사업은 이후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예컨대 COC사업의 경우 ① 대학 전체적인 방안으로서 내용 명확화(학칙 등의 내용, 모든 교직원에 대한 FD·SD 철저 등), ② 대학의 교육 연구와 일체가 된 방안(전학생이 재학 중에 한 과목은 지역지향 과목을 이수하는 교육 커리큘럼·교육조직의 개혁 반드시 실시), ③ 대학과 지자체가 조직적·실질적으로 협력(협정, 대화의 장 설정 등), ④ 현재까지 지역과의 연계 실적, ⑤ 지자체로부터의 지원 철저 매칭펀드 방식(재정지원, 건물 무상대여, 인원 파견 등) 등이 그것이다.

SPARC 사업의 경우 COC, COC+, COC+R 사업을 거치면서 지적된 문제의식, 즉 지역사회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대학 측도 그것을 제시·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학 등이 지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지역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의 핵심으로서 고도화를 담당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예를 들면 SPARC 사업에 선정된 미야자키대학, 미나미큐슈대학, 미야자키국제대학, 미야자키가쿠인단기대학은 미야자키현에 소재한 대학들로, 이들 4개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들 대학은 SPARC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현내 지역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40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해 학생들이 대학의 경계를 넘어 각 대학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의 목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미래 공동 창조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이 힘을 합쳐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며, 생산성이 높은 1차 산업, 식품사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역사회 헬스케어, 지역사회 수의학, 지역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 (2021.2.).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 | 교육부 (2015). 「대학-산업-인재」가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선순환 구조 본격 구축. 9월 21일, 보도자료.
- | 교육부 (2021).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2월 28일, 보도자료.
- | 교육부 (202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2년 기본계획.
-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2023.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3년 기본계획(안).
- | 김보민, 박주병 (2023). 대학 기반의 지역특화 인재양성: 일본 ‘대학에 의한 지방창생 인재교육 프로그램 구축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재정 웹진, 제20호(2023년 7월호).
- | 이정연 (2022).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재정, 제5호(2022년 2월호).
- | 최정윤, 강충서, 김나영, 백승주, 임후남, 정혜주, 조옥경, 서재영, 정동열(2022).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의 종합진단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 LEE, Young-Jun, Hanada, Shin-ichi, & Um, Chang-Ok (2023). 일본의 COC+정책에서 지역지향교육이 지역애착과 지역정착에 미치는 효과: 히로사키지역을 중심으로. 한일경상논집, 99, 21-33.
- | 金沢工業大学 地方創生研究所 (<https://www.kanazawa-it.ac.jp/IRRI/>)
- | 小山治, 「「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COC+)の結果、地域内就職者割合は増加したのか—国立大学に着目した試論的な検討—」, 『都市社会研究』, 第15号, せたがや自治政策研究所, 2023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 (<https://sparc-j.jp/>)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岐阜の取組) (<https://sparc-j.jp/activities/gifu/>)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熊本の取組) (<https://sparc-j.jp/activities/kumamoto/>)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長野の取組) (<https://sparc-j.jp/activities/nagano/>)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宮崎の取組) (<https://sparc-j.jp/activities/miyazaki/>)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山口の取組) (<https://sparc-j.jp/activities/yamaguchi/>)
- | 地域活性化 人材育成事業: SPARC(山梨の取組) (<https://sparc-j.jp/activities/yamanashi/>)
- | 出口英樹, 「大学の全学的な教育改革における特定事業支援政策の効果と課題—「地(知)の拠点大学」事業(COC / COC+)に注目して—」, 『鹿児島大学総合教育機構紀要』, 第4号, 鹿児島大学総合教育機構, 2021
- | 出口英樹, 「大学の特定事業支援政策が全学的な教育改革を惹起する効果とその到達点—「地(知)の拠点大学」事業(COC / COC+)の評価と実際の達成度—」, 『鹿児島大学総合教育機構紀要』, 第5号, 鹿児島大学総合教育機構, 2022
- | 日本学術振興会, 採択事業計画一覧 (<https://www.jsps.go.jp/j-sparc/sentei.html>)
-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人材教育プログラム構築事業(COC+R)リーフレット (https://www.mext.go.jp/content/20210326-mxt_chisui02-000007395-1.pdf)
- | 文部科学省, 大学による地方創生の取組事例集 (https://www.mext.go.jp/content/20210511-mxt_koutou01-000014454_1.pdf)
- | 文部科学省, 平成26年度「地(知)の拠点整備事業」パンフレット(事業概要)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5/05/27/1358108_02.pdf)
- | 文部科学省, 平成27年度「地(知)の拠点大学による地方創生推進事業(COC+)」パンフレット(表紙・目次・概要) (https://www.mext.go.jp/component/a_menu/education/detail/_icsFiles/afieldfile/2016/10/28/1378661_01_1.pdf)
- | 文部科学省, 令和4年度「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SPARC~」公募説明会資料 (https://www.mext.go.jp/content/20220317-mxt_daigakuc03-000020985_0001.pdf)
- | 文部科学省, 令和4年度大学教育再生戦略推進費「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SPARC~」 (https://www.mext.go.jp/content/20220317-mxt_daigakuc03-000020985_0001.pdf)
- | 文部科学省, 令和4年度大学教育再生戦略推進費「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SPARC~」の選定結果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20830-mxt_daigakuc03_000024687_1.pdf)
- | 文部科学省, 令和4年度大学教育再生戦略推進費地域活性化人材育成事業~SPARC~ 審査要項 (https://www.mext.go.jp/content/20220307-mxt_daigakuc03-000021038_0002.pdf)